

金 時 晁 教授指導
石士學位 請求論文

朝鮮時代 班家の 正朝茶禮에 관한 研究

- 慶北地域 5宗家の 事例를 中心으로 -

2004

誠信女子大學校 文化産業大學院

文化産業學科 禮節茶道學專攻

金 吉 玲

論 文 概 要

본 論文은 文獻을 토대로 正朝茶禮의 개념과 내용을 정리하고 慶北地域 5宗家를 중심으로 班家の 正朝茶禮를 사례 조사하여 문헌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正朝茶禮의 원형을 탐색하고, 그 現代의 意義를 照明하였다.

문헌으로는 『사례집의』(1887), 『광례람』(1893), 『증보사례편람』(1900)을 살펴보고, 사례조사는 慶州의 月城 孫氏 孫昭(1433-1484) 先生 宗家, 星州의 淸州 鄭氏 鄭述(1543-1620) 先生 宗家, 玄風의 苞山 郭氏 郭再祐(1552-1617) 先生 宗家, 大邱의 慶州 崔氏 崔興遠(1705-1786) 先生 宗家, 星州의 星山 李氏 李源祚(1792-1781) 先生 宗家の 다섯 宗家를 조사하였다. 본 論文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문헌과 사례조사의 正朝茶禮의 내용을 비교 분석한 결과, 茶禮를 앞둔 하루 전 물을 뿌려 쓸고 목욕재계 한다고 문헌에 언급된 바와 같이 사례조사의 다섯 宗家 모두 하루 전날 사당 안팎을 깨끗이 소제하고, 제구와 제기를 준비하여 齋戒로써 ‘정성’을 다함을 알 수 있었다.

祭服의 경우, 문헌에는 性別과 官職에 따른 성복이 언급된 데 반해 사례조사 결과 경북지역 남성들은 유건이나 갓을 쓰고 종가에 따라 흰색, 옥색, 황색도포의 색깔로 차이를 나타내었다.

사당의 神主는 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의 순으로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모시는 것으로 문헌에 나타났으나 사례조사 결과, 경북지역 5宗家에서는 문헌과 같이 서쪽에서부터 위대의 신위를 모시는 원칙은 지켜지고 있었지만 不遷位를 모시는 위치에 따라 다소의 차이를 보였다.

祭需의 경우, 문헌을 통해서는 湯餅, 漁, 肉, 酒, 果, 脯, 醢등의 종류만

을 가늠해 볼 수 있을 뿐, 정확한 진실 여부를 파악하기는 어려웠으나 사례조사결과 正朝茶禮에는 4열로 진설하였으며 올린 제수는 떡국, 술, 과, 장, 포, 적, 식혜, 탕, 침채 등이었고 祭器로는 유기를 사용하였다.

正朝茶禮를 행하는 시간은 이른 아침으로 문헌에 기술된 바와 같이 사례조사결과, 崔興遠 宗家를 제외한 나머지 宗家에서는 오전 9시-10시경에 茶禮를 지내고 있었다. 茶禮의 절차는 문헌에서는 降神 후에 參神을 하였으나 사례조사 결과, 문헌과 같은 경우는 鄭述 宗家와 崔興遠 宗家였으며 參神 후 降神을 한 宗家是 孫昭 宗家, 郭再祐 宗家, 李源祚 宗家였다. 문헌과는 달리 사례조사에서는 侑食과 落匙箸의 절차도 보였다. 또한 문헌에서는 撤 이후의 과정으로 飲福에 대해 제시되지 않았으나 사례조사결과 宗家에서는 정성으로 만든 祭需를 조상에게 올린 후 그 음식을 자손들이 모여 나누어 먹음으로써 친족의 화목과 화합을 이루는 절차로 중요시 여기고 있었다.

2. 正朝茶禮의 사례분석을 토대로 그 현대적 의의를 논하면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새해 첫날 子孫으로서 祖上和 父母의 은혜를 기리는 의례를 행함으로써 개인의 뿌리 의식과 자아정체성 확립의 토대가 된다. 둘째, 家族들의 和睦과 共同體 意識 함양의 계기가 되며 셋째, 正朝茶禮는 협동과 화합 및 사회화 교육의 場이 된다. 즉 正朝茶禮는 새로 맞이하는 한 해의 시작으로 먼저 祖上을 追慕하고 報恩의 道理로서 孝를 다하는 禮의 실천이다. 이것은 단순히 傳統의 답습이 아니라 조상과 이어지는 개인의 존재 의미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며 흩어져 있던 친족들의 화목을 도모하는 만남의 場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가치관을 지닌 현대인들에게는 서로 협동하여 誠과 敬의 덕목을 배우는 인격 형성을 위한 사회화 교육의 場으로써의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目 次

論 文 概 要

I. 序 論	1
1. 문제제기	1
2. 연구범위 및 방법	3
II. 正朝茶禮 考察	7
1. 正朝茶禮의 개념	7
1) 行禮場所에 따른 祭禮의 구분	7
2) 正朝茶禮의 의미	10
2. 文獻을 통해 본 正朝茶禮의 내용	14
3. 先行研究	27
III. 慶北地域 班家の 正朝茶禮 事例調査 分析	34
1. 경주 월성 손씨 손소 선생 종가	34
2. 성주 청주 정씨 정구 선생 종가	42
3. 현풍 포산 곽씨 곽재우 선생 종가	47
4. 대구 경주 최씨 최홍원 선생 종가	51
5. 성주 성산 이씨 이원조 선생 종가	56
IV. 結 論	60
1. 正朝茶禮의 원형탐색	60
2. 正朝茶禮의 현대적 의의	67

참고문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 1> 고찰 문헌	3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6
<표 3> 선행 연구	32
<표 4> 5宗家 남성의 正朝茶禮 제복비교	63
<표 5> 5宗家 正朝茶禮 제수비교	65
<표 6> 正朝茶禮의 절차 및 시간비교	66

그림 목 차

<그림 1> 『家禮』 正至朔日俗節出主櫝圖	12
<그림 2> 『家禮』 望日不出主圖	12
<그림 3> 『가례집람』 의 男女盛服圖	16
<그림 4> 『광례람』 의 삭참진설도	20
<그림 5> 『광례람』 의 속절진설도	20
<그림 6> 손소 종가의 전개도	36
<그림 7> 손소 종가의 사당	37
<그림 8> 손소 종가의 正朝茶禮 제수 진설도	38
<그림 9> 정구 종가의 사당	44
<그림 10> 정구 종가의 正朝茶禮 제수 진설도	45
<그림 11> 광재우 종가의 사당	48
<그림 12> 광재우 종가의 正朝茶禮 제수 진설도	49
<그림 13> 최홍원 종가의 평면도	52
<그림 14> 최홍원 종가의 사당	53
<그림 15> 최홍원 종가의 正朝茶禮 제수 진설도	54
<그림 16> 이원조 종가의 사당	57
<그림 17> 이원조 종가의 正朝茶禮 제수 진설도	58

사 진 목 차

<사진 1> 사당(손소 종가)	39
<사진 2> 향나무	39
<사진 3> 열린 제기함	39
<사진 4> 제기함- 1	39
<사진 5> 제기함- 2	39
<사진 6> 잔반	40
<사진 7> 시접	40
<사진 8> 떡국 제기	40
<사진 9> 퇴주기	40
<사진 10> 떡국	40
<사진 11> 술 주전자	40
<사진 12> 포	40
<사진 13> 적	40
<사진 14> 편육	40
<사진 15> 강신잔반, 시접	40
<사진 16> 간장, 침채	40
<사진 17> 식혜	40
<사진 18> 대추	40
<사진 19> 배	40
<사진 20> 감	40
<사진 21> 사과	40
<사진 22> 은행	40
<사진 23> 유밀과	40
<사진 24> 제복	41

<사진 25> 갓	41
<사진 26> 제상	41
<사진 27> 제수진설- 측면	41
<사진 28> 제수진설- 정면	41
<사진 29> 참사자 서립	41
<사진 30> 참신	41
<사진 31> 분향 강신	42
<사진 32> 헌작	42
<사진 33> 사당- 1(정구 종가)	46
<사진 34> 사당- 2	46
<사진 35> 신주독	46
<사진 36> 제기	46
<사진 37> 제복	47
<사진 38> 갓	47
<사진 39> 주독	47
<사진 40> 서원(곽재우 종가)	50
<사진 41> 사당- 1	50
<사진 42> 사당- 2	50
<사진 43> 위패	50
<사진 44> 신주	50
<사진 45> 제복	50
<사진 46> 사당- 1(최홍원 종가)	54
<사진 47> 사당- 2	54
<사진 48> 사당- 3	55
<사진 49> 위패- 1	55
<사진 50> 위패- 2	55

<사진 51> 제기	55
<사진 52> 시집	55
<사진 53> 잔반	55
<사진 54> 병대	55
<사진 55> 적대	55
<사진 56> 제복	55
<사진 57> 사당(이원조 종가)	59
<사진 58> 사랑채	59
<사진 59> 안채	59
<사진 60> 제구- 1	59
<사진 61> 제구- 2	59
<사진 62> 제기	59
<사진 63> 제복	59
<사진 64> 유건	59

I. 序 論

1. 문제제기

禮는 개인의 윤리 규범이며 국가사회의 질서를 나타내는 개념으로써 한 사회의 문화 전반을 대변해 주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禮는 사회와 유리된 것이 아닌 생활 그 자체라 할 수 있고 행동으로 옮겨 실천하는 것이며 인간으로서의 바른 도리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예절문화 중 四禮(冠禮, 婚禮, 喪禮, 祭禮)는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부여해 왔다. 그 중 祭禮는 돌아가신 조상에 관한 교훈과 업적을 기리고 자손들이 모여 서로간의 화합과 일체감을 조성하여 부모와 친족의 어른을 공경과 정성으로 대하는 孝의 실천이다. 그러므로 祭禮는 孝 사상에 따라 발달되었으며 정성을 다하여 제사를 지내는 行禮로써의 禮로 나타나게 된다. 孝는 부모가 생존해 계실 때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지켜야 할 덕목이자 도리이기 때문이다.

제례는 행례 공간에 따라 정침, 묘소, 사당에서 행해진다. 祠堂에서 지내는 제례 중 명절 음식으로써 조상을 받드는 禮로 설날의 茶禮는 正朝¹⁾ 茶禮, 元朝茶禮, 正朝茶祀, 正初祭祀, 年始祭라고도 하는 名節茶禮에 해당된다.

설날은 元旦, 歲首, 年首, 年始, 年頭라 하며 1년의 첫날을 일컫는 말이다. ‘설’은 한자로 慎日이라고 하는데 이는 근신하여 삼간다는 뜻을 지니고 있어 이를 실천하고자 설날 아침에는 歲饌과 歲酒를 진설한 후, 온 가

1) 正朝 : ① 정월 초하루의 아침 ② 임금이 여러 신하의 조회를 받는 곳 등의 뜻이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정월 초하루의 의미로 한한다.

족이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사당에 모신 모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자손 된 도리로 여겨져 온 名節茶禮의 의미가 있다.

오늘날과 같은 핵가족화 사회에서 개인주의, 이기주의 가치관을 지닌 현대인들에게 돌아가신 조상을 기리며 가족간의 화목을 도모하고 부모와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여 자손들에게 孝를 실현하는 본보기와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더욱이 그 어느 때보다도 茶禮行禮의 근본정신이나 가치가 희미해져 의례적인 관습 정도로만 여겨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조상을 추모하는 孝의 의례로서 正朝茶禮를 바르게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正朝茶禮의 내용과 형식을 지켜 온 朝鮮時代 班家の 正朝茶禮를 사례 조사하여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은 점차 변화되고 사라져가는 正朝茶禮의 원형을 찾아 그 현대적 의의를 새롭게 조명하는 일환이 될 것이다.

正朝茶禮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祭禮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야에 비해 깊이 있게 연구되거나 정리된 사례가 적은 실정이다. 선행연구에서는 正朝茶禮에 대한 歲時風俗(김명자, 1990; 임재해, 2002)내지는 祭需(윤숙경, 1996; 조후종, 2002; 장성현, 2002; 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분석의 시각에서 접근해 왔을 뿐, 正朝茶禮에 초점을 두고 그 개념과 내용을 직접적으로 연구한 것은 미진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을 토대로 正朝茶禮의 개념과 내용을 고찰하고 慶北地域 5宗家를 대상으로 班家の 正朝茶禮를 사례 조사하여 문헌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正朝茶禮의 원형을 탐색하고 그 현대적 의의를 조명하는데 목적을 둔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1) 문헌고찰

본 연구에서는 조선후기에 편찬된 『四禮集儀』(1887), 『廣禮覽』(1893), 『增補四禮便覽』(1900)을 토대로 각 의례서의 祭禮 내용 가운데 正至朔望 시의 參禮와 俗節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正朝茶禮를 고찰하고 분석하였다. 고찰 문헌의 개관은 다음과 같다.(<표 1>참조)

<표 1> 고찰 문헌

구분 \ 문헌	四禮集儀	廣禮覽	增補四禮便覽
집필연대	1887	1893	1900
저자	박문호	수산	황필수, 지송옥
구성	10권 5책	3권 2책	8권
내용	권1 관례	권1 상례	권1 관례, 부계례
	권2 혼례	권2 제례	권2 혼례
	권3-7 상례	권3 관례, 혼례	권3-권7 상례
	권8-10 제례		권8 제례

(1) 사례집의

『四禮集儀』는 호산 박문호(1846-1918)가 丁亥年(1887) 仲秋(음력 8월) 既望(16일)에 42세의 나이로 이룩한 관혼상제례에 관한 종합적인 禮書이다. 『禮記』, 『儀禮』, 『公羊傳』, 『南華經』, 『莊周』, 『大戴禮』, 『戴德』, 『書傳』, 『孔安國』, 『白虎通義』, 『班固』 등을 인용하여 저술한 문헌으로 卷 1 冠禮, 卷 2 昏禮, 卷 3-7 喪禮, 卷 8-10 祭禮로 이루

어져 있다. 이중 祭禮의 내용을 살펴보면

卷8에는 개장의(改葬儀) 제례(祭禮) 시립사당의(始立祠堂儀) 제토지의(祭土地儀) 신알의(晨謁儀) 출입고의(出入告儀) 이환안의(移還安儀) 삭참의(朔參儀) 망참의(望參儀) 수관등과고묘의(授官登科告廟儀) 분황의(焚黃儀) 생자현묘의(生子見廟儀)

卷9에는 시제의(時祭儀) 제토지의(祭土地儀) 귀조준의(歸胙餽儀) 예제의(禰祭儀)

卷10에는 기제의(忌祭儀) 묘제의(墓祭儀) 선조묘제의(先祖墓祭儀) 제후토의(祭后土儀) 귀조준의(歸胙餽儀) 유사고묘의(有事告墓儀) 고후토의(告后土儀) 배소의(拜掃儀)의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2) 광례람

『廣禮覽』의 저자는 號만 전한다. 癸巳年(1893) 仲冬(음력 11월) 하한[下旬] 綏山은 序하다고 되어 있다. 서문을 보면

여러 책을 모으고 흠어 널리 상고하고 나머지는 여러 말들을 절충하여 상세한 것은 덜고 소략한 것은 보태어 모아 한 책을 만들어 『광례람』이라 이름 하였다. ‘廣’이란 미루어 넓힌다는 뜻이므로 그 예를 든 것이 마치 笏記와 같다. 그래서 갑자기 변고를 당했을 때, 참고하여 행할 수 있는 것이다. …… 차라리 대중을 따르고 세속을 따를지언정 어긋남에는 이르지 않을 것이다.²⁾

이는 기존의 규범예의보다 현실의 실천예의를 중시한 예서로 보여진

2) 수산 저, 문옥표정양완 外 역, 「광례람」, 『조선시대 관혼상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 p.8.

다. 이재(1680 -1746)의 『四禮便覽』과 김장생의 『喪禮備要』에 근본하고 여러 학설을 참조하였으며, 실행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의문이나 문제점을 꼼꼼히 지적하고 있다. 모두 3권 2책으로 구성되었으며 卷1은 喪禮, 卷2는 祭禮, 卷3은 冠禮와 婚禮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廣禮覽』의 체례는 『四禮便覽』本文의 家禮正文만을 그대로 옮겨 놓고 그렇지 않은 것은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다. 祭禮조항에는 祠堂, 晨謁, 參禮, 俗節, 有事告, 時祭, 禩祭, 忌祭, 墓祭의 부분으로 기록되어 있다.

(3) 증보사례편람

『四禮便覽』은 『家禮』를 강령으로 하고 古禮와 先儒의 학설을 근거 삼아 번잡함과 간소함을 참작하고 異同을 바로잡아 한권으로 엮은 것이다. 四禮便覽의 저자는 陶庵 李穡(1680-1746)로 노론의 중심인물로 활약하였으며 1844년 李光正이 이 책을 간행하였다.

사례편람을 증보한 『增補四禮便覽』은 황필수가 편저자이며 지송육이 간행하였다. 『증보사례편람』은 전체 8권으로 卷 1은 冠禮, 卷 2는 婚禮, 卷3-卷7은 喪禮, 卷8은 祭禮로 이루어져 있다.

체례는 祠堂, 四時祭, 禩祭, 忌日祭, 墓祭의 다섯 부분으로 나뉘어 설명되고 있다.

2) 사례조사

본 연구는 경북지역에 거주해온 朝鮮時代 班家인 경주의 월성 손씨 양민공 손소 선생 종가, 성주의 청주 정씨 한강 정구 선생 종가, 현풍의 포산 곽씨 망우 곽재우 선생 종가, 대구의 경주 최씨 백불암 최홍원 선생 종가, 성주의 성산 이씨 응와 이원조 선생 종가의 5 宗家를 대상으로

正朝茶禮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사례 조사 시, 조사자의 기초 자료를 토대로 기본면접 양식(<부록>참조)을 마련하고 조사대상자는 구술로 응답하였다. 면접 시, 각 집안의 종손과 종부들을 비롯하여 가문 내 여러 어른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茶禮의 절차나 형식, 제수의 진설, 家歷이나 특이사항 등은 남성들이 주로 응답하였다.

조사기간은 2003년 12월 27일부터 2004년 2월7일까지 5宗家를 조사 하였고 관련 내용의 사진자료를 촬영하여 수집하였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종 가 항 목	월성 손씨 손소 (1433-1484) 宗家		청주 정씨 정구 (1543-1620) 宗家	포산곽씨 곽개우 (1552-1617) 宗家	경주 최씨 최홍원 (1705-1786) 宗家		성산 이씨 이원조 (1792-1871) 宗家	
	남	여	여	남	남	여	남	여
성 명	손성훈	조원길	김 기	곽일태	최진돈	이동희	이수학	조정자
연 령	50	49	64	72	58	56	67	64
형제 순위	20대 종손	종부	17대 종부	12대 후손	9대 종손	차종부	5대 종손	종부
종 교	유교	유교	유교	유교	불교	불교	유교	유교
혼인 연수	22년		42년	48년	31년		41년	
거주지	경주		성주	현풍	대구		성주	
조 사 년 월 일	2003년 12월 27일		2004년 1월 15일	2004년 1월11일	2004년 2월7일		2004년 1월 15일	

II. 正朝茶禮 考察

1. 正朝茶禮의 개념

1) 行禮場所에 따른 祭禮의 구분

(1) 正寢³⁾

정침에서의 제례로는 四時祭, 忌日祭, 禰祭 등이 있다.

四時祭는 사계절 춘·하·추·동의 仲月인 음력 2월·5월·8월·11월에 택일을 하여 고조부 이하의 조상을 모시고 제사 지내던 것이다. 중국의 『家禮』에서 가장 중시한 제례였으나 조선시대부터 기제가 중시되면서 사시제에 대한 인식은 점차 퇴색되었다.

忌日祭는 조상의 휘일(諱日)⁴⁾ 즉 조상이 別世하신날 정침에서 올리는 제사이다. 그러므로 기제사는 한 분의 조상에 대해 일년에 한번만 지낸다. 忌는 금기의 뜻이며 諱는 피한다는 뜻이니 다른 일은 삼간다는 의미가 있다. 오늘날은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로 인식되고 있으며 돌아 가신 날 저녁에 집에서 자손들이 모여 제사를 지낸다.

禰祭의 ‘禰’는 아버지 사당을 뜻하고 매년 9월에 택일하여 정침에서 올리는 제사이며 시제의 의식과 같이하되 다만 해당 감실에만 고한다. 부모를 네(禰)라 부르는 뜻은 가깝다는 것이다.⁵⁾

3) 정침은 제사를 지내는 몸체의 방으로 거처하는 곳이 아닌 주로 일을 집행하는 곳이다.

4) 휘일(諱日)은 제삿날, 命日, 忌日 이라고도 불리워진다.

5)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한국민속의 생활』 제2권, 2001, p.299.

(2) 墓所

우리나라에는 4절일(正朝, 寒食, 端午, 秋夕)에 묘소를 찾아가 제사를 지내는 것 이외에도 우리 속습에는 10월 묘소에서 지내는 시제가 전통적으로 엄격히 지켜져 이를 시제, 묘사라고 칭하며 기제사를 지내지 않는 그 윗대의 조상 즉 5대조 이상의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것이 관행이 되었다.

(3) 祠堂

사당은 조상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대개 집의 동북쪽에 위치하며 사당에 모시는 조상의 범위는 대개 4대 봉사를 해왔으나 대종가의 경우는 4대 조상의 범위 외에 不遷位도 모신다. 가문에 따라 불천위 조상이 여러 분일 경우 모시는 사당을 따로 둔다.

사당에서 행하는 예로는 晨謁禮, 出入禮, 參禮, 薦新禮, 有事告, 俗節이 있다. 晨謁禮는 주인이 새벽에 사당의 문 안에 들어가 분향하는 예로 아침에 드리는 문안 인사이다.

出入禮는 주인과 주부가 외출 나가고 들어올 때 사당에 고하는 것을 말한다. 나들이 할 때는 대문에 들어가서 침례(瞻禮:우러러 인사하는 예)를 행하며 잠을 자고 돌아 올 때는 분향재배, 멀리 나가서 열흘을 지낼 때는 재배하고 분향하며 고하고 또 재배한다. 돌아와서도 또 이와 같이 한다. 한달을 지내고 돌아 올 때는 중문을 열고 계단아래에서 재배, 동쪽 계단으로 올라가서 분향하고 고하며 다시 재배하고 내려와 중문 밖에서 재배한다.⁶⁾

參禮는 正至朔望則參⁷⁾이라 하여 조상의 신주를 모신 사당에서 정월

6) 황필수 편저, 문옥표·정양완 外 역, 「증보사례편람」, 『조선시대 관혼상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 p.34.

초하루[正朝], 冬至, 그리고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참례하는 것으로 正朝 冬至 초하루에는 술과 과일을 올리고 보름에는 술을 차리지도 신주를 내모시지도 않고 다만 신주 독을 열기만 하고 분향 할 뿐이다.

薦新禮는 계절에 새로 나는 음식을 사당에 올리는 예로, 율곡이 말하기를 새 물품이 있으면 올리는 데 반드시 초하루, 보름, 속절에 함께 차리고 오곡으로써 밥을 지을 수 있는 것은 마땅히 반찬 몇 가지를 갖추어 같이 차리되 예를 삭참의 의식과 같이 한다⁸⁾하였다.

有事告는 집안에 특별한 일이 있으면 사당에 고하는 것을 말하며 參禮를 올리는 절차와 같다. 관직을 받거나 강등될 때, 주인이 만아들을 낳아 삼 개월이 지난 후, 돌아가신 부모님의 생신을 맞았을 때, 傳書(살림을 전함)할 때, 사당을 수리할 때, 집을 사서 이사 갈 때, 사당에 불이 났을 때 등에는 사당에 고한다.

율곡의 『擊蒙要訣』의 祭儀鈔에 의하면 俗節은 1월15일, 3월3일, 5월 5일, 6월15일, 7월7일, 8월15일, 9월9일, 12월 납일(12월 30일)⁹⁾이 해당하며 이때 사당에서 속절에 숭상하는 음식을 큰 쟁반으로 올리고 나물, 과일을 섞어 설날·동지·초하루의 의식과 예를 행한다. 만약 속절에 숭상하는 음식이 없으면 떡, 과일 두어 가지를 갖춘다.

7) 주희 저, 임민혁 역, 『주자가례』, 서울:예문서원, 1999, p. 63.

正至朔望, 則參 正조, 동지, 초하루, 보름이 되면 참배한다.

8) 황필수 편저, 전계서, p.39.

9) 이율곡 저, 김성원 역, 『격몽요결』 〈祭儀鈔〉, 서울:명문당, 1986, p.157.

俗節에 謂 正月 十五日. 三月三日. 五月五日. 六月十五日. 七月七日. 八月十五日. 九月九日及臘日 獻以時食

2) 正朝茶禮의 의미

(1) 正朝

正月은 하늘, 땅, 사람이 하나로 화합하고 한 해 동안 이루어야 할 일들을 계획하고 기원하는 달이다. 正月 초하루는 달이 이지러진 상태의 극점에 있을 뿐 아니라 지나가는 해와 작별을 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전환점으로 통과 의례의 전이기에 속하므로 삼가고 자제하며 몸과 마음을 조이는 의례로 예의와 규범을 갖추어 茶禮와 세배를 행하게 된다. 설은 한해를 시작하는 날, 곧 정월 초하루인 正朝를 일컫는 순수한 우리말이다. ‘설’이란 새해의 첫머리란 뜻이고 설날은 그 중에서도 첫날이란 의미를 지닌다. 설은 최초의 시간, 시작의 시간에 대한 낮설고 생경한 시간인식을 어원적으로 나타낸 것이며 최초의례, 시작의 의식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¹⁰⁾

또한 새해의 첫날을 설이라 하는 것은 설은 삼가다 또는 싫다는 뜻을 지닌 까닭이다. 三元之日이라하여 일 년의 첫날, 달의 첫날, 날의 첫날이기 때문에 元朝라고도 한다.¹¹⁾

(2) 正朝茶禮

우선 正朝와 관련지어 節祀 즉, 名節祭祀에 관한 기록을 『家禮』의 卷1 通禮 사당편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민속명절의 제사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자 주자가 말했다. “한위공이 처리한 것이 좋으니 節祠라 하는데 正祭[時祭]보다 강쇄하였다.”

10) 임재해 “설민속의 형성근거와 ‘시작의 시간 인식’ 『민속학술자료총서』 4차, 2002. pp.151-155.

11) 조후중, 『세시풍속과 우리 음식』, 서울:한림출판사, 2002, p.27.

또 장남헌(張南軒)에게 답하여 말하기를 “오늘날의 민속명절은 옛날에는 없었다. 그러므로 옛사람들은 비록 祭祀를 지내지 않아도 情理上 역시 스스로 편안하였다. 지금 사람들은 이미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 그날에 이르면 반드시 술안주와 맛있는 음식을 마련하여 서로 잔치하고 즐기며 그 계절의 물건 역시 마땅함이 있었다. 그러므로 세속의 정리도 이날에 이르면 그의 祖考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다시 그 물건으로 제향 한다. 비록 올바른 禮는 아니나 사람의 정리 상 그만두지 못하는 것이다.”¹²⁾

또한 節祀에 茶를 썼던 기록을 살펴보면

정조, 동지, 초하루, 보름이 되면 參禮한다. 主人이 올라가 홀을 꺾고 주전자를 들어 술을 따르되 먼저 正位에 올리고 다음에 祔位에 올린다. 다음에 長子에게 명하여, 여러 부위의 향렬이 낮은 분들에게 술을 따라 올리도록 한다. 주부가 올라가 茶籠을 잡고 집사가 湯瓶을 들고 따라가서 茶를 올리는 것을 앞과 같이 한다. 長婦나 長女에게 명하여 역시 그대로 한다. 며느리와 집사가 먼저 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다. 주인은 홀을 빼어들고 주부와 따로 향탁 앞의 동쪽과 서쪽에 나누어 서서 재배하고 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다.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재배, 사신하고 물러간다. 보름에는 술을 진설하지 않고 신주도 내놓지 않는다. 주인이 茶를 넣을 때 장자가 이를 돕고 먼저 내려간다. 주인은 향탁의 남쪽에 서서 재배하고 내려간다. 나머지는 위의 의식과 같다.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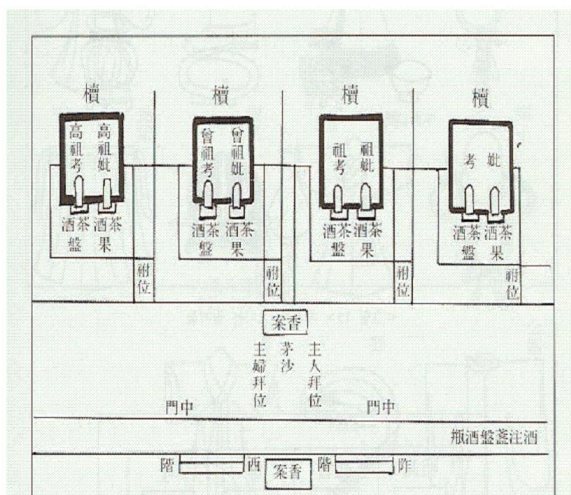
12) 주희 저, 전계서, pp.74-75.

問“俗節之祭如何?”朱子曰,“韓魏公處得好,謂之節祠,殺於正祭.“今日俗節古所無有.故古人雖不祭而情亦自安.今人既以此爲重,至於是日,必具設羞相宴樂,而其節物亦各有宜.故世俗之情,至於是日,不能不思基祖考,而復以其物享之.雖非禮之正,然亦人情之不能已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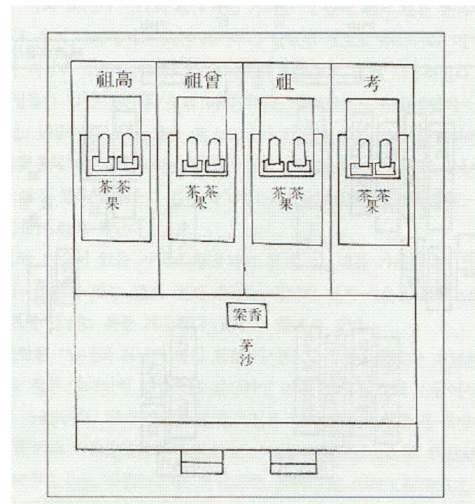
13) 주희 저, 상계서, p.65.

이로 보면 주자가 『家禮』를 저술할 당시 중국에서는 正朝, 冬至, 초하루, 보름이 되면 參禮를 행하는 가운데 茶를 올리는 의식을 행했음을 알 수 있다. 단 正朝, 冬至, 초하루에는 술과 차를 모두 올린데 반해 보름에는 차만을 올렸을 뿐이다.(〈그림 1〉, 〈그림 2〉 참조)

그러나 율곡의 『擊蒙要訣』 祭儀鈔에 우리나라 풍속에 茶를 쓰는 禮가 없다¹⁴⁾고 했던 것으로 보아 茶禮라는 용어가 우리나라에서 일반화된 것은 조선중기 이후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1> 『家禮』 正至朔日俗節出主櫝圖



<그림 2> 『家禮』 望日不出主圖

그렇다면 좀더 나아가 우리나라에서 正朝에 지내는 節祀로서 茶禮가 명명된 문헌을 살펴보면, 먼저 『동국세시기』(1849) 正月 元일에

서울 풍속에 이날 사당에 제사 지내는 것을 茶禮라 한다.¹⁵⁾

고 하였으며, 『농가십이월속시』(1861) 正月에도

14) 이율곡 저, 전계서, p.153.

15) 홍석모 저, 이석호 역, 「동국세시기」, 『조선세시기』, 서울:동문선, 1991, p.18.

사당의 차례상엔 무슨 음식 진설하나
떡국에다 술과 과일 고깃국에 포와 식혜¹⁶⁾

라고 하여 正朝와 차례상에 올리는 제수에 관해 7언시로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正朝에 행하는 節祀의 禮를 茶禮로 칭했던 것은 최영년(1856-1935) 『명절풍속』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옛 풍속에 節祀의 禮가 있으니 이를 茶禮라고 한다. 매년 설날 아침에
흰 떡국을 올리고 온 가족이 모여 그것을 먹으니 이를 떡국차례라고
부른다.¹⁷⁾

이상에서 보면, 正朝茶禮는 正至朔望의 參禮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사당에서 행해지는 節祀의 의미를 지녀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俗節 음식으로 떡국이 차례상에 올려져 正朝茶禮를 떡국차례로도 불렀던 것과도 연관지어 볼 수 있으며 또한 이들 세시기를 보면 조선후기에는 서울의 풍속으로 민간에서 茶禮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유추하게 된다. 이는 茶禮의 명칭이 제사양식과 상관없이 서울 및 경기지역의 말이 표준말화 됨으로써 명절제사가 茶禮로 통일되어 일컬어지게 되었다고 한 임재해(2002)의 견해와 맥락을 같이 한다. 오늘날에도 茶禮라는 용어는 매년 설날과 추석의 명절 아침에 조상에게 올리는 祭禮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1999년에 제정된 건전가정의례준칙에도 설날과 추석의 茶禮를 명절차례로 칭하고 차례는 명절 아침에 주손의 가정에서

16) 김형수 저, 이창희·최순권 역, 「농가십이월속시」, 『조선대세시기』, 국립민속박물관, 2004, p.230.

17) 최영년 저, 이창희·최순권 역, 「명절풍속」, 『조선대세시기』, 국립민속박물관, 2004, p.306.

지내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2. 文獻을 통해본 正朝茶禮의 내용

본 연구에서는 조선후기에 편찬된 『四禮集儀』(1887), 『廣禮覽』(1893), 『增補四禮便覽』(1900)을 토대로 각 의례서의 제례 내용 가운데 正至朔望 시의 參禮와 俗節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正朝茶禮의 준비(齋戒, 祭服, 祭具, 祭需)와 절차를 분석, 고찰하였다.

1) 正朝茶禮의 준비

(1) 齋戒

제사를 앞둔 사람이 마음과 몸을 깨끗이 하여 언행을 삼가는 것을 齋戒라고 한다. 문헌을 통해 正朝茶禮를 준비하는 齋戒의 모습을 살펴보면, 『사례집의』 朔參儀에

하루 전에 물 뿌려 쓸고 목욕재계하며 밤을 지낸다. 俗節에는 음식을 마련한다. 이튿날 일찍 일어나 주인 이하가 盛服한다.¹⁸⁾

고 하였고, 『증보사례편람』 正至朔望則參에도

하루 전에 물 뿌려 쓸고 하룻밤을 지낸다. 이튿날 일찍 일어나...¹⁹⁾

18) 박문호 저, 문옥표·정양완 외 역, 「사례집의」, 『조선시대 관혼상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 p.145.

19) 황필수 편저, 전계서, p.34.

라고 하여 正朝茶禮를 지내기 하루 전에 집 안팎과 사당을 정결히 하고 주인과 주부 이하 참사자들이 목욕을 함으로써 齋戒에 임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茶禮를 지내는 당일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 제반 준비를 시작했음도 알 수 있다.

(2) 祭服

祭服은 제사를 지낼 때 참사자들이 입는 예복이다. 朔參儀의 제복에 대해 『사례집의』에는

주인 이하가 盛服한다. 대개 盛服이라는 것은 관직이 있는 사람의 경우는 公服이고 관직이 없는 사람의 경우는 보통 쓰는 帽子和 衫 곧 笠子和 道袍이며, 일반적으로는 深衣를 통용하여 입는다. 부인의 경우는 大衣와 長裙 혹은 宵衣, 冠, 帔이다. 친정에 있는 딸이나 첩들의 경우에는 背子를 입는다. 동자는 四揆衫을 입는다.²⁰⁾

고 설명하고 있다. 『증보사례편람』에는

대개 성복이라는 것은 관직이 있는 사람의 경우 幘頭, 公服, 帶, 靴이고, 進仕의 경우 幘頭, 襴衫, 帶이며, 處士의 경우 幘頭, 阜衫, 帶이다. 관직이 없는 사람은 보통 쓰는 帽子, 衫, 帶이고 또 이것을 갖추지 못하면 深衣나 涼衫을 입는다. 벼슬이 있는 사람이라도 또한 帽子 이하를 통용하여 착용하되 성복으로 여기지는 않는다. 부인의 경우는 冠, 帔, 大衣, 長裙이며, 시집 안간 딸이나 혹은 친정에 있는 딸의 경우에는 冠, 背子를 입고, 여러 첩들은 假髻, 背子이다.²¹⁾

20) 박문호 저, 전계서, p.145.

21) 황필수 편저, 전계서, p.35.

고 하였다. 이상 『사례집의』와 『증보사례편람』에 언급된 바를 보면 남성의 경우에는 관직의 유·무에 따라 성복에 차이를 보여 관직이 있으면 公服, 襴衫, 阜衫 등을 입었고 관직이 없으면 深衣 혹은 笠子[갓]와 道袍를 착용했으며 남아의 경우에는 四揆衫을 예복으로 입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의 경우에는 長裙과 大衣 혹은 背子를 착용했으며 머리에는 假髻나 冠을 썼다. 이러한 복식은 흰색이나 옥색을 위주로 하는 기제사와는 다른 것으로, 비단 正朝茶禮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 관례나 혼례가 있을 경우에도 盛服으로 착용되었던 華服이다. 이 같은 正朝茶禮 시의 盛服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하고자 조선중기에 저술된 김장생의 『가례집람』(1599)의 男女盛服圖를 살펴보았다.(<그림 3>참조)



<그림 3> 『가례집람』의 男女盛服圖

<그림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正朝茶禮를 지낼 때의 제복은 새해를 맞이하여 삼가 정갈하게 갖춘 華服으로써 살아 계신 어른들을 뵈듯이 사당의 조상들께 禮를 행하기 위한 준비였음을 알 수 있다.

(3) 祭具

正朝茶禮를 지내기 위해 사당²²⁾에서 쓰이는 祭具는 祭器를 포함한 제반 기구를 통칭하며 제구에 대한 의례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사례집의』 朔參儀에 이르기를

사당에 나아가 집사자가 문을 열고 발을 걷고 먼지를 털고 자리를 쓸고 화로와 부젓가락을 서쪽 계단 위에 놓고 설거지 그릇과 행주를 동쪽 계단 위에 놓고 술잔과 그릇을 씻어 물기를 닦는다. 새 과일과 제철 나물과 술잔과 잔받침을 감실마다 탁자 위에 놓는다. 젓가락 접시를 술잔과 잔받침의 사이에 놓고 밥이 있으면 숟가락을 아울러 놓는다. 따로 탁자를 동쪽 계단 위에 놓고, 술 주전자와 (강신할) 술잔과 잔받침을 그 위에 놓고, 술병을 그 서쪽에 놓는다. 손수물 대야와 수건을 동쪽 계단 아래에 동남에 놓는다. 수건은 북쪽에 놓는다. 여자의 손수물 대야와 수건은 서쪽 계단 아래 서남에 놓는다. 모두 남향으로 한다. 향로에 불을 피우고, 자리를 뜰에 편다.²³⁾

22) 『사례집의』를 보면 사당에 모시는 考妣의 신위는 堂 서쪽의 북쪽 벽 아래에 남향해서 모시되 서쪽을 상좌로 하고 考와 妣를 탁자 하나에 함께 모신다. 曾祖考妣, 祖考妣, 考妣도 차례로 동쪽으로 모셔 모두 高祖의 신위와 같이 하되 代마다 각각 자리를 만든다. 『광례람』에도 사당은 세 칸으로 하되 정면을 중문으로 하고 문밖을 東과 西로 하여 두 계단을 삼층으로 하는데 동쪽 계단을 阼階라하고 서쪽 계단을 西階라하고 하였다. 주위에 담을 두르고 따로 바깥문을 만드는데 앞쪽을 남으로 한다. 네 개의 감실을 만들어 선대의 신주를 모신다. 만약 사당이 한 칸이라 한 줄로 모시기 어려우면 고조의 신위를 가운데 모셔 남향하게 하고 할아버지는 서쪽에 모셔 동향하게 한다.

23) 박문호 저, 전계서, pp.145-146.

고 하였고, 『광례람』 參[참례]에는

일찍 일어나서 사당의 문을 열고 감실마다 과일을 한 大盤씩 탁자 위에 차리고, 술잔과 잔받침은 하나씩 考와 妣의 신주독 앞에 놓는다. 茅沙를 놓고 따로 탁자 하나를 동쪽 계단 위에 차려 술과 주전자와 (강신할) 잔과 잔받침을 하나씩 그 위에 놓고, 술 한 병을 그 서쪽에 놓는다. 대야와 수건은 각각 하나씩 동쪽 계단 아래에 놓는다.²⁴⁾

고 하였다. 『증보사례편람』 正至朔望則參에도

일찍 일어나 문을 열고 발을 걷고 감실마다 새 과일 盤을 탁자 위에 놓는다. 神位마다 신주독 앞에 잔과 잔받침을 놓고 茅沙를 향탁 앞 (아래)에 놓는다. 따로 동쪽 계단 위에 탁자를 놓고 술 주전자와(강신할) 잔과 잔받침을 그 위에 놓는다. 술병을 그 서쪽에 놓고 손숫물 대야와 수건을 동쪽 계단 아래 동남쪽에 놓는다. 또 주부와 여 집사자의 손숫물 대야와 수건을 서쪽 계단 아래 서남쪽에 놓는데 모든 제사에 같다.²⁵⁾

이상 세 문헌에서 언급된 正朝茶禮 시 사용된 祭具를 종합해보면, 考妣에 올리는 술잔 이외에 강신하는데 쓰이는 잔과 잔받침이 준비되었음을 알 수 있고 향탁 앞 아래에 놓이는 茅沙에 대한 언급은 『증보사례편람』에서 찾아볼 수 있다. 모사는 띠를 한 줌 잘라 붉은 실로 묶고 모래 가운데에 세우는 데 받드시 띠를 쓰는 것은 그 몸체가 순하며 결이 곧고 부드럽고 깨끗하니 제사를 받드는 德은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한다. 붉은

24) 수산 저, 전계서, p.103.

25) 황필수 편저, 전계서, p.34.

실로 묶는 것은 그 文采를 빛나게 하려 함이고, 모래는 깨끗이 하려 함이다²⁶⁾고 하였다. 제구 가운데 손숫물 대야를 마련했던 것은 茶禮를 행하기 전 손을 씻음으로써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淨化의 준비로 판단된다.

(4) 祭需

祭需란, 제사를 지낼 때 祭床에 올리는 여러 가지 祭物을 말하는 것이다. 먼저 마음과 몸을 정결하게 하고 생활의 형편에 따라서 알맞은 제물을 갖추어 올리는 것이 진정 정성스러운 제사가 될 수 있다. 『사례집의』 朔參儀에는 가난으로 술과 과일을 마련하지 못하면 中門을 열고 焚香하고 재배하기를 보름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²⁷⁾고 하여 가정의 형편껏 준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正朝에 올리는 時食인 湯餅[떡국]에 대해 『사례집의』에 이르기

俗節에는 時食을 올린다. 正朝에는 湯餅, 15일에는 藥飯...²⁸⁾

이라고 하였다. 『광례람』에는 떡국을 가리켜 餅羹²⁹⁾, 『증보사례편람』에서는 湯餅³⁰⁾으로 칭하고 있다. 그 밖에 의례서에는 正朝茶禮의 제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나 『광례람』에는 朔參陳設圖(<그림 4>)와 俗節陳設圖(<그림 5>)가 제시되어 있어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는 正朝

26) 황필수 편저, 전계서, p.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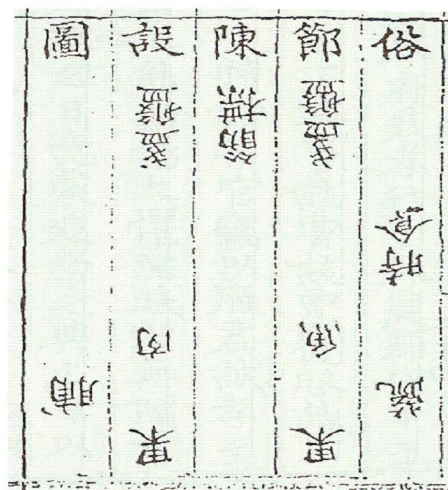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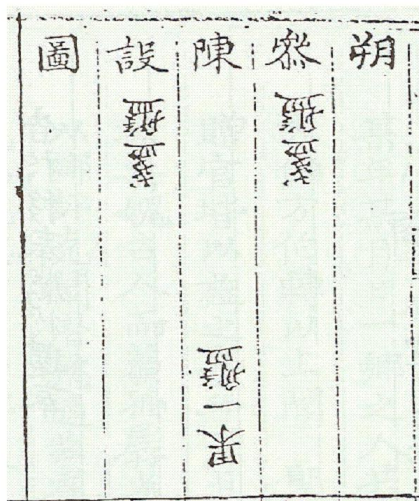
27) 박문호 저, 전계서, p.144.

28) 박문호 저, 상계서, p.144.

29) 수산 저, 전계서, p.104.

30) 황필수 편저, 전계서, p.40.

에 酒, 果, 時食으로서 湯餅, 漁, 肉, 脯, 蔬 등을 제수로 올렸음을 유추해 낼 수 있다.



<그림 4> 『광례람』의 삭참진설도 <그림 5> 『광례람』의 속절진설도

이와 관련지어 세시기를 살펴보면 『농가십이월속시』(1861)에는

사당의 차례상엔 무슨 음식 진설하나
 떡국에다 술과 과일 고깃국에 포와 식혜
 무청과 움파에다 미나리 넣은 물김치
 그 맛이 신선하여 오신채 부럽잖네³¹⁾

라고 하였으며, 최영년(1856-1935)의 『명절풍속』正月에는

여린 추위의 봄 새벽 사당을 끌고
 만두와 흰 떡국을 진설하네

31) 김형수 저, 전계서, p.230.

남녀노소 새 옷 차려 입고 절하니
초주향과 단향 내음 그윽하네³²⁾

또한, 『명절풍속』 놀이에는 강정팔기에 대해

옛 풍속에 설날 아침 차례에 강정을 좋은 음식으로 여겼다. 이는 대개
고려 시대에 부처를 숭상하는 풍속을 모방한 것으로 유과 쓰는 것을
진귀하게 여기던 것이 그대로 굳어져 관습이 되었다. 상인들 중에 설
달 그믐날 전에 돌아다니며 과는 자를 강정장사라고 부른다.

고치 모양의 粗粩 청색홍색 물들이니
부처를 숭상하던 고려의 풍속에서 비롯 되었네
항상 설날의 차례음식이 되었기 때문에
하늘 가득 눈 내리는데 강정장사 소리치네.³³⁾

이 같은 세시기의 내용을 통해 조선후기에 正朝茶禮에서 쓰였던 酒,
果, 臠(고깃국), 脯, 醢, 饅頭, 白餅湯, 菹, 粗粩(중배끼) 등의 제수를 가늠
해 볼 수 있다. 이처럼 『명절풍속』에서 白餅湯으로 언급된 바와 같이
설의 떡국은 흰떡으로 끓이기 때문에 제수로 올리는 메밥처럼 희고 깨끗
할 뿐 아니라 별식으로써 끼니 구실을 한다.

흰떡은 밝음과 깨끗함과 처음을 상징하는데 새해의 티 없고 밝은 경건
함을 담고 있으며 밝은 한해를 소망하는 뜻을 담고 있고 둥글게 찢어
놓은 떡의 모양은 새로 떠오르는 태양과도 같다.³⁴⁾

32) 최영년 저, 전계서, p.307.

33) 최영년 저, 상계서, pp.373-374.

34) 임재해, 전계서, p.148.

2) 正朝茶禮의 절차

(1) 『사례집의』의 正朝茶禮 절차

正朝茶禮에 임하는 주인과 주부 이하 참사자들이 사당에서의 자리 위치를 『사례집의』 朔參儀에서 살펴보면

주인 이하가 남자는 왼쪽, 여자는 오른쪽으로 차례로 서되 (같은) 代가 한 줄이 되게 한다. 주인은 동쪽 계단 아래에 북향하고, 주부는 서쪽 계단 아래에서 북향한다. (주인에게) 어머니가 계시면 주부의 앞에 따로 자리하게 하고, 맏아들은 주인의 뒤에, 맏며느리는 주부의 뒤에, 맏손자는 맏아들의 뒤에, 맏손녀는 맏며느리의 뒤에 선다. 여러 숙부, 백부는 주인의 앞 오른쪽에 자리 잡게 하는데 서쪽을 상좌로 한다. 여러 백모, 숙모와 고모는 주부의 앞 왼쪽에 따로 자리 잡게 하는데 동쪽을 상좌로 한다. 여러 형은 주인의 오른쪽 조금 앞에 여러 아우는 약간 물러나서고, 자손과 외집사자는 뒤에 서는데 두 줄로 서쪽을 상좌로 한다. 여러 형수와 손위 누이는 주부의 왼쪽 조금 앞에 있고, 아우의 아내와 여러 손아래 누이는 약간 물러나 선다. 며느리와 손주며느리와 여집사자는 뒤에 두 줄로 동쪽을 상좌로 하여 있게 한다. 서열은 조금 간격을 두고 선다. 여러 첩들은 여집사자 속에 같이 선다. 35)

다음으로 茶禮의 절차인 神主開櫃, 降神, 參神, 獻爵, 辭神, 納主, 撤의 순으로 정리해보았다.

· 자리를 정해 서고 나면 주인과 주부는 손숫물 대야 남쪽에서 북향하여 손을 씻고 물기를 닦고 올라간다. 주인은 동쪽 계단을 거치고 주

35) 박문호 저, 전계서, p.146.

부는 서쪽 계단을 거친다. 나머지 사람들도 서쪽 계단을 거친다. 주인이 신주독을 열어 덮개를 받침의 동쪽 가까운 북쪽에 놓고 여러 남자 조상의 신주를 받들어 모셔 신주독 앞에 놓는다. 주부는 여러 여자 조상의 신주를 받들어 모셔 남자 조상 신주의 동쪽에 놓는다. 다 끝나면 주부는 먼저 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다.

· 주인이 향탁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분향하되 세 번 올린다. 엎드렸다가 일어나 재배한다. 약간 물러나 서면 집사자 두 사람이 손을 씻고 물기를 닦고 올라가 한 사람은 술병을 열어 술주전자에 술을 채우고, 주인의 오른쪽으로 받들고 가서 서향한다. 한 사람은 강신할 잔과 잔받침을 잡고 주인의 왼쪽으로 나아가 동향한다. 주인이 무릎을 꿇으면 집사자도 다 무릎을 꿇는다. 주인이 주전자를 받아 술을 따르고, 주전자를 돌려주고 잔과 잔받침을 받들되, 왼손으로는 잔받침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잔을 잡아 모두 기울여 모사 위에 부어 降神하고, 잔과 잔받침을 집사자에게 준다. 집사자는 모두 일어나 주전자, 잔과 잔받침을 먼저 있던 곳에 되돌려 놓고 모두 내려가 제 자리로 되돌아간다. 주인은 엎드렸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나 재배하고 내려가 제 자리로 돌아간다.

· 參神은 주인 이하가 모두 재배한다. 부인은 四拜한다.

· 주인이 올라가 주전자로 매 位 마다 잔속에 술을 따르는데 正位로부터 다음에 祔位의 차례로 마친다.

· 주전자를 먼저 있던 곳에 되돌려 놓고 젓가락을 접시 위에 바로 놓는다.(밥이 있으면 뚜껑을 열고 숟가락을 쫓는다.) 향안 앞에 서서 북향하고, 만아들이 올라가 부위 중 향렬이 낮은 부위에 술을 따르고 먼저 내려가 제 자리에 돌아간다. 아될 것이 있으면 축관이 올라가 무릎 꿇고 읽기를 의식대로 한다. 혹은 주인이 스스로 아된다. (주인이) 재배하고 내려가 제 자리로 돌아간다. 엄숙하게 조금 기다린다.(밥이 있으면 국을 물리고 송냥을 올린다.)

- 집사자가 올라가 젓가락을 접시에서 내리고(밥이 있으면 숟가락을 내리고 뚜껑을 덮는다.) 내려와 제 자리로 돌아간다.
- 辭神은 주인 이하가 모두 재배하고 부인은 四拜한다.
- 납주는 주인과 주부가 올라가서 신주를 거두어 신주독에 모시되 주인은 여러 남자 조상의 신주를 거두고 주부는 여러 여자 조상의 신주를 거둔다. 주인이 신주독을 닫으면 모두 내려와 제 자리로 돌아간다.
- 예식을 마치면 집사자는 술과 과일을 물리고 발을 내리고 문을 닫는다. 제기를 씻어 진설했던 그릇을 아울러 보관하고서 물리나고 외문을 걸어 잠근다.³⁶⁾

(2) 『광례람』의 正朝茶禮 절차

『광례람』에는 주부이하 여성들의 參禮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 않으며 讀祝의 절차도 생략되어 있다.

- 주인 이하가 차례로 서서 손을 씻고 올라가 신주독을 열어 考妣의 신주를 꺼낸다.
- 주인이 향이 놓인 탁자 앞에 가서 분향, 재배하고 약간 물리나 서면 집사자가 주전자에 술을 채운다. 한 사람이 주전자를 받들고 주인 오른쪽에 나아가면 한 사람이 (降神의) 잔과 잔받침을 받들고 주인 왼쪽으로 나가 모두 무릎을 꿇는다. 주인이 주전자를 받아서 술을 따르고 난 후 돌려주고 잔과 잔받침을 잡고 받들되 왼손으로는 잔받침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잔을 잡아 모사에 붓고 잔과 잔받침을 집사자에게 준다. 집사자가 물리나면 주인은 엎드렸다가 일어나 조금 물리나 재배하고 내려가 먼저 자리로 돌아간다.
- 參神은 주인 이하가 모두 재배한다.

36) 박문호 저, 전계서, pp.145-148.

- 주인이 술주전자를 들고 正位에게 술을 따르고, 祔位는 자제들에게 시킨다. 주인이 항상 앞에 서서 재배하고 내려가 자리로 돌아온다.
- 辭神은 주인이하가 모두 재배한다.
- 주인이 신주를 거둔다.
- 집사자는 제물을 물리고 문을 닫고 물러난다.³⁷⁾

(3) 『증보사례편람』의 正朝茶禮 절차

- 자리를 정해 서고 나면 주인은 손을 씻고 물기를 닦고, 올라가 신주독을 열어 여러 남자조상의 신주를 받들어 모셔 신주독 앞에 놓는다. 주부는 손을 씻고 물기를 닦고 여러 여자 조상의 신주를 받들어 모셔 남자 신주의 동쪽에 놓고 그 다음에는 부주를 모셔 내기를 이와 같이 한다. 장자, 맏며느리 혹은 맏딸에게 명하여 손을 씻고 물기를 닦고 올라가서 향렬이 낮은 祔主를 나누어 모셔내기를 또한 이와 같이 한다. 다 끝나면 주부 이하는 먼저 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다.
- 주인은 향탁 앞에 나아가서 降神, 분향하고 재배한다. 약간 물러나 서면 집사자는 손을 씻고 물기를 닦고 올라가 술병을 열고 술주전자에 술을 채운다. 한 사람은 술을 받들어 주인의 오른쪽에 나아가고 다른 한 사람은 잔과 잔받침을 잡고 주인의 왼쪽으로 나아간다. 주인이 무릎 꿇으면 집사자도 다 무릎을 꿇는다. 주인이 주전자를 받아 술을 따르고 난 후 돌려주고 잔과 잔 받침을 받들되 왼손으로 잔받침을 잡고 오른손으로 잔을 잡아 모사 위에 붓고 잔과 잔받침을 집사자에게 돌려준다. 엎드렸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서서 재배한다.
-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재배하여 參神한다.
- 주인이 올라가 주전자를 잡아 술을 따르는데 먼저 正位에게 하고

37) 수산 저, 전게서, pp.103-104.

다음에 祔位에게 한다. 다음에 장자에게 명하여 여러 부위 중 항렬 낮은 부위에 술을 따르게 하고, (장자가) 먼저 내려가 제자리에 서면 주인이 향탁 앞에 서서 재배하고 내려가 제자리로 돌아간다.

· 자리에 있는 사람과 더불어 모두 재배한 후 辭神하고 주인과 주부가 올라간다.

· 신주를 거두어 신주독에 모시는 것은 신주독을 열 때의 의식과 같다.

· 내려와 제자리에 서면 집사자는 술과 과일을 물리고 발을 내리고 문을 닫고 내려와 물러난다.³⁸⁾

이상 세 문헌을 통해 살펴본 正朝茶禮의 절차는 공통적으로 神主開櫃, 降神(분향, 뇌주), 參神, 獻爵, 侑食, 辭神, 納主, 撤의 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각 절차를 보면 正朝茶禮는 그 자리에 참석한 후손들이 각자의 주어진 위치에서 질서정연하게 맡은 바를 이행함으로써 祠堂에 모신 4代の 조상을 비롯하여 위계에 의거한 正位와 祔位에 대해 禮를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長子와 長婦 혹은 長女에게는 부모가 자녀에게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는 孝 교육의 계기가 되며 가족간의 화합과 화목을 도모하는 생활교육의 일환으로 여겨진다.

설날 아침에 사당에서 행하는 茶禮의 절차는 忌祭에 비해 소략하다. 忌祭에서의 三獻과 달리 茶禮는 單獻으로 매 位에 술을 한번만 올린다.

『家禮』에도 초하루 아침과 俗節에 술을 한번만 올리는 것은 考와 妣에게 각각 한 잔씩만을 따르는 것³⁹⁾임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茶禮는 忌祭

38) 황필수 편저, 전계서, pp.35-36.

39) 주희 저, 전계서, p.74.

와는 달리 讀祝의 절차가 생략된다. 『사례집의』에도 “아될 것이 있으면”이라는 언급이 단서로 있는 것으로 보아 茶禮에서는 일반적으로 『광례람』과 『증보사례편람』에서와 같이 讀祝의 절차가 생략되거나 告由로 대신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창선(1999)도 설날의 茶禮는 年始告由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정월 초하룻날 아침 조상에게 세배 드리고 고유하는 절차를 행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正朝茶禮를 행함에 있어 여성의 參祀가 『광례람』에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실천예의를 중시한 綏山이 1893년경 문헌을 기술할 당시 일부에서는 여성들이 茶禮에 참석하지 않고 있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도 유추된다.

3. 先行研究

正朝茶禮 연구는 현재 미흡한 실정이어서 祭禮에 관한 연구에서 말쑥하여 그 내용을 정리하였다.

이수은⁴⁰⁾의 연구에는 차례가 예서에는 없으나 민간에서 널리 행하고 있는 의례로 高祖考妣 이하 4대를 正朝, 寒食, 端午, 流頭, 七夕, 重九, 冬至의 아침에 제사 지내며 이중 正朝와 秋夕에 행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고 하였다.

손민영⁴¹⁾은 ‘茶禮’라는 용어는 음력으로 매달 초하루와 보름, 명절, 조상의 생일에 지내는 간단한 낮 제사를 뜻하기도 하고 晝茶小盤果, 夜茶小盤果의 경우처럼 차가 없는 차림도 가리킨다고 하였다. 또한 人(사람), 神

40) 이수은, “영남지방의 제례에 관한 조사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p.5.

41) 손민영, “한국차례의 사적 고찰,” 한국식문화학회지, 1989, p.101.

(신명), 佛(부처님)에게 차를 바치는 예의도 茶禮라고 언급하였다.

김명자⁴²⁾의 연구에서는 정초차례는 전국 어느 가정에서나 치러지는 年始祭로, 설날 아침 설빔으로 곱게 갈아입은 후 조상에게 新年祭로 차례를 지내며 장손의 집에서 친척이 모인 가운데 儒家式 祭禮를 따른다고 하였다.

이영춘⁴³⁾은 명절의 차례는 俗節祭 혹은 節祀라고도 하며 옛날에 사당을 모시고 있던 집에서 설, 청명, 한식, 단오, 칠석, 중양에 그 계절에 나는 음식을 올리던 관습에서 유래했던 것인데, 지금은 설과 추석의 차례만 남게 되었다고 하였다.

윤숙경⁴⁴⁾의 연구에서는 명절이나 일정절기에 4대 조상을 범위로 낮에 사당에서 올리는 것을 차례로 정의를 내렸다.

이창선⁴⁵⁾은 차례는 年始告由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정월 초하룻날 아침 조상에게 세배 드리는 절차이므로 제사가 아니고 告由라고 언급하였다.

두경자⁴⁶⁾의 연구에서는 가정의례준칙에는 기제, 절사, 연시제가 권장되고 있으며, 음력 설의 연시제는 四名節祭(正朝, 寒食, 端午, 秋夕)의 의미가 사라지고 다례의 형식으로 행례되어 그 행사를 유지하려는 흔적이 보인다고 하였다.

황명희⁴⁷⁾의 연구는 家禮를 비롯한 예서에서는 정규제사인 사시제를 중

42) 김명자, “세시풍속의 순환의미”, 『한국 민속학 총서』 6권, 서울:교문사, 1990, p.220-221.

43) 이영춘, 『차례와 제사』, 서울:대원사, 1994, p.113.

44) 윤숙경, “안동지역의 제례에 따른 음식문화(I)”,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996, p.440.

45) 이창선, 『상례와 제례』, 서울:자유문고, 1999, P.168.

46) 두경자, “우리나라 제례의 검토와 제례 재구성모델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18권 3호, 상명대학교 소비자 주거학과, 2000, P.349.

47) 황명희, “전통제례에 대한 현대적 재조명”,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P.51.

시하였지만 우리의 관습적인 제사에서는 기제와 속절제(명절의 차례)가 중시되었다고 밝혔다.

임재해⁴⁸⁾는 名節茶禮를 名節祭祀, 節祀, 茶祀라고도 하는데 차례는 『주자가례』에서 보이는 의례인 것으로 보아 고려말기에는 차를 바치는 간소한 의례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제사양식과 상관없이 명칭이 서울 및 경기지역의 말인 차례가 표준말화 됨으로써 명절제사는 차례로 통일되어 일컬어지게 되었다고 논의하였다.

또한 임재해⁴⁹⁾의 연구에서는 설 차례는 1년의 시작 의례로서 시간적 개념의 최초의례로 산 조상께 세배를 드리듯이 죽은 조상께도 세배를 드리는 것임을 언급하였다. 새해맞이 인사로 하는 제사이므로 기일에 올리는 기제사와 달리 모든 조상신들을 한 자리에 다 모셔놓고 제사를 올린다고 하였다.

안해벽⁵⁰⁾의 연구에서 설은 한해가 시작되는 날이며, 예서에 따르면 설에 마련된 제사는 參禮 가운데 朔祭와 薦新禮로 양반가에서는 이날을 중히 여겨 격식을 갖추어서 차례를 올린다고 하였다.

조후중⁵¹⁾의 연구에서 차례는 원래 茶를 올리는 예로서 정월의 조상 숭배 행사의 중요한 행사이며 茶祀, 正朝茶禮라고도 하였다. 본래의 뜻은 여러 명절과 조상의 생일 또는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지내던 간단한 아침제사를 의미하던 것인데 지금은 설과 추석에만 지내고 있다. 차례의 관행은 주자의 『가례』에 의존하는 바가 크며 조선시대 『國朝五禮儀』에 실린 관혼상제, 성종 16년(1485)부터 시행된 『經國大典』과 『四禮便覽』이 간행되

48) 임재해, “단오에서 추석으로” 『민속학술자료총서』 4차, 우리마당터, 2002, P.273.

49) 임재해, “설 민속의 형성근거와 시작의 시간인식”, 『민속학술자료총서』 4차 우리마당터, 2002, P.139.

50) 안해벽, “전통제례의 윤리적 의미고찰” 『민속학술자료총서』 3차, 우리마당터, 2002, P.294.

51) 조후중, 『세시풍속과 우리음식』, 서울:한림출판사, 2002, P.28.

면서 널리 보급되었다고 하였다.

장성현⁵²⁾의 연구에서는 차례는 간소한 약식제사로 보통 아침이나 낮에 기제를 지내는 조상들의 신주나 지방 또는 사진을 모시고 지내며 기제를 지내는 장손의 집에서 지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방이나 가문의 전통에 따라 한식이나 추석에는 산소에서 지내기도 한다고 하였다.

홍금이⁵³⁾의 연구에서는 차례는 사람이나 신에게 예를 갖추어 차를 달여서 올리거나 마시는 일이라고 하였으며 명절에 따라서 행해지는 경우는 節祀라고도 하며 正月一日과 八月十五日에 지내게 되는 제사는 곧 차례로 불려지고 있다고 하였다.

강현숙⁵⁴⁾의 연구에서는 사당제인 참례, 천신례와 묘제가 통합되어 茶禮라는 형식으로 행하여지고 있으며 명절차례는 冬至의 始祖祭, 立春의 先祖祭 그리고 설날, 한식, 추석에 기제사 대상의 조상에 지내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김시황⁵⁵⁾의 연구에서는 명절에 지내는 節祀를 茶禮, 茶祀, 茶薦 등이 라고 언급하였다. 이는 명절인 설, 단오, 칠석, 추석, 동지, 중구 등에 지내며 無祝單獻이다.

이길표·최배영⁵⁶⁾의 연구에는 명절에 우리의 조상들은 계절음식을 신 위 앞에 차리고 예를 드렸는데 이를 절사 또는 차례라고 부른다고 하였다. 예서에는 명절에 사당에 절식을 올렸다는 기록도 있어 사당차례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사당이 있는 집에서는 사당에서 지내기 때문이다. 차례

52) 장성현, “제례음식과 의식에 관한 인지도 조사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5.

53) 홍금이, “고려시대 궁궐다의 고찰”, 성신여자 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8.

54) 강현숙, “조선후기 제의의 시간. 공간적 의미에 대한 고찰” 성신여자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3.

55) 김시황, 『한국예학산고』 서울:푸른사상, 2002, p.227.

56) 이길표·최배영 공저, 『일반생활예절』, 서울:청목문화사, 2003, p.214.

제수가 기제의 제수와 다른 점은 기제사에는 제물이 사철 동일하고 메와 갯을 쓰지만 차례에는 절식을 쓴다. 과일도 높이 꺾지 않고 수북이 담아서 쓰며 색이 화려한 것을 써도 무방하다고 하였다.

한기정⁵⁷⁾의 연구에서는 속절과 명절차례는 간단한 饌品과 시절음식을 함께 올려 지내는 의례로써 그 절차 또한 매우 간소하였다. 조선 초기에는 술과 차를 올렸는데 술은 단작이며 차는 17세기 초반까지는 올려진 것으로 보이며 그 이후에도 차의 쓰임 유무에 관계없이 속절과 명절에 올리는 약식의 제의를 대변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우리나라에서는 관습적으로 민속명절에 조상에게 올리는 제사를 차례라고 해왔고 한글이 창제 반포된 뒤에는 茶禮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요즘에는 차례와 다례를 통용하고 있다.

국립문화재 연구소⁵⁸⁾는 사당에 모셔져 있는 불천위와 고조부 증조부 조부께 설과 추석에 제사 드리는 것을 차례라 하며 차를 올리는 예라는 뜻에서 '차례'라는 말이 유래된 것으로 유추하였다. 『주자가례』에는 正至朔望則參이라 하여 조상의 신주를 모신 사당에서 정월 초하루와 동지,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참배하는 제사가 있으며 이때 조상의 신위 앞에 술과 차를 올려 제사를 지냈고 매월 보름에는 술을 올리지 않고 차만 올렸다고 하였다. 지금은 설날과 추석차례만 큰 명절로 남아있다.

이상 正朝茶禮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모아 정리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57) 한기정, “조선시대 상.제례를 통해본 헌사의 고찰,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85.

58) 국립문화재 연구소, 『중가의 제례와 음식』, 김영사, 2003, P.20.

<표 3> 正朝茶禮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년도)	논제	연구방법	내용	출처
이수은 (1981)	영남지방의 제례에 관한 조사 연구	문헌연구 사례연구	차례는 고조고비 이하 4대를 정조 한식 단오 유두 칠석 중구 동지 의 아침에 제사 지내는 것으로 정 조와 추석에 행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있다.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
손민영 (1989)	한국 차례의 사적 고찰(I)	문헌연구	茶禮라는 용어는 晝茶小盤果, 夜 茶小盤果의 경우처럼 차가 없는 차림도 가리키며 人 神 佛에게 차 를 바치는 예의이다.	한국식문화 학회지Vol.5, No.1
김명자 (1990)	세시풍속의 순환의미	문헌 연구	正初茶禮는 전국 어느 가정에서나 치러지는 新年祭이다.	한국민속학 총서 6
이영춘 (1994)	차례와 제사	문헌연구	명절의 차례는 속절제 혹은 절사 라고 한다.	대원사
윤숙경 (1996)	안동지역의 제례에 따른 음식문화	문헌연구 사례조사	명절이나 일정절기에 4대 조상을 범위로 낮에 사당에서 올리는 것 이 차례이다.	한국식생활 문화학회지 Vol.11.No.4
이창선 (1999)	쉽게 풀어쓴 상례와 제례	문헌연구	정월 초하룻날 아침에 조상에게 세배 드리는 절차를 年始告由라고 한다. 제사가 아니고 고유이다.	자유문고
두경자 (2000)	우리나라 제례의 검토와 제례 재구성 모델 연구	문헌연구	가정의례준칙에는 기제, 절사, 연 시제가 권장되고 있다. 음력설의 연시제는 四名節祭의 의미가 사라 지고 다례의 형식으로 행례되고 있다.	민속학술자료 총서 3차
황명희 (2001)	전통제례에 대한 현대적 재조명	문헌연구	우리의 관습적인 제사에서는 기제 와 속절제가 중시되었다.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 (석사)
임재해 (2002)	단오에서 추석으로	문헌연구	차례는 제사양식과 상관없이 명칭 이 서울 및 경기지역의 말이 표준 말화 됨으로써 명절제사는 차례로 통일되어 일컬어지게 되었다.	민속학술자료 총서 4차

임재해 (2002)	설과 보름 민속의 대립적 성격과 유기적 상관성	문헌연구	명절차례는 4대조를 비롯한 조령 의 신위를 한 자리에 모시고 한꺼 번에 제사를 올린다.	민속학술자료 총서 4차
안해벽 (2002)	전통제례의 윤리적 의미고찰	문헌연구 사례조사	예서에 의하면 설에 마련된 제사 는 朔祭와 薦新禮이다.	민속학술자료 총서 3차
조후종 (2002)	세시풍속과 우리음식	문헌연구 (사진)	차례는 원래 차를 올리는 예로서 정월의 조상숭배 행사로 茶祀, 正 朝茶禮라고 한다.	한림출판사
장성현 (2002)	제례 음식, 의식에 관한 인지도 조사연구	설문지조사 (경기,경북)	차례는 간소한 약식제사로서 음력 매월 초하룻날과 보름날, 명절이 나 조상의 생신날에 아침이나 낮 에 지낸다.	세종대학교 대학원(석사)
홍금이 (2002)	고려시대 궁궐茶儀 고찰	문헌연구	차례는 사람이나 신에게 예를 갖 추어 차를 달여서 올리거나 마시 는 일이며 명절에 따라서 행해지 는 경우는 節祀라고도 한다.	성신여자대학 교 대학원 (석사)
강현숙 (2002)	조선후기 제례의 시간, 공간적 의미에 대한 고찰	문헌연구	사당제인 참례, 천신례, 묘제가 통 합되어 茶禮라는 형식으로 행하여 지고 있다.	성신여자대학 교 대학원 (석사)
김시황 (2002)	한국예학산고	문헌연구	명절에 지내는 절사를 茶禮, 茶祀, 茶薦등이라고 한다.	푸른사상사
이길표 최배영 (2003)	일반생활예절	문헌연구	명절에 계절음식을 신위 앞에 차 리고 예를 드렸는데 이를 節祀 또 는 茶禮라 부른다.	청목문화사
한기정 (2003)	조선시대 상·제례를 통해본 현대의 고찰	문헌연구	속절과 명절차례는 간단한 찬품과 시절음식을 함께 올리는 의례로서 차례라 명명되어져 약식의 제의를 대변하게 되었다.	성신여자대학 교 대학원 (석사)
국립 문화재 연구소 (2003)	종가의 제례와 음식	문헌연구 사례조사	사당에 모셔져 있는 학봉의 불천 위와 고조부 증조부 조부께 설과 추석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차례’ 라 한다.	김영사

Ⅲ. 慶北地域 班家の 正朝茶禮 事例調査 分析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경북지역의 조선시대 반가 가운데 손소(1433-1484) 선생 종가, 정구(1543-1620)선생 종가, 곽재우(1552-1617)선생 종가, 최홍원(1705-1786)선생 종가, 이원조(1792-1871)선생 종가의 5宗家로 正朝茶禮를 12월 27일부터 2월 7일까지의 면접을 통해 사례조사 하였다.

1. 경주 월성 손씨 손소 선생 종가

경주시 강동면에 위치하고 있는 양동마을은 마을전체가 중요민속자료 제189호로 지정돼 국가적 보호를 받고 있는 민속촌이다. 마을의 鎭山이라 할 雪倉山에서 뻗어 내리는 능선과 ‘勿’자형이라고 하는 골짜기를 중심으로 경주 손씨의 대종가 書百堂이 자리잡고 있고 여강 이씨의 대종가 無忝堂이 위치하고 있다. 산 둔덕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으며 손소 종가는 내곡 마을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며 직계, 방계는 그 아래에 자리하고 있다.

書百堂 손소(1433-1484)선생은 조선초기의 문신으로 시호는 襄敏, 號는 松齋이다. 4-5세기경, 풍덕류씨 萬戶公(復河)이 마을에 정착해 살았는데 손소 선생이 풍덕 류씨 집안으로 장가를 들어 경주에 자리 잡게 되었고 세조 13년(1467) 이시애의 난에 종사관으로 출정하여 큰 업적이 인정되어 敵愾功臣⁵⁹⁾ 2등에 책봉되었다. 손소 선생은 아들 다섯과 딸 둘을 두었으며 장녀가 李蕃과 혼인하여 이언적(1491-1553)이 태어나 이, 손의 양 문중이 함께 번성하여 5백년동안 양 氏族의 世居 집성촌으로 대물림하게 된다.

59) 적개공신은 세조 때 이시애의 난을 평정하는데 공로가 있던 사람에게 내린 훈호(勳號)이다.

둘째 아들인 손중돈(1463-1529)선생은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27세에 대과에 급제했고 工曹判書와 吏曹判書를 지냈으며 43세에 상주목사로 재임하였을 때는 선정을 베풀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生祠堂을 지어 선생을 추모했다. 높은 학덕과 탁월한 경륜을 편 공덕으로 清白吏에 녹선 되었고 67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으며 청렴결백을 신조로 삼았다 하여 景節이란 시호를 내렸다.⁶⁰⁾

면접조사에 응한 손성훈은 손소 선생의 20대손이다.

1) 茶禮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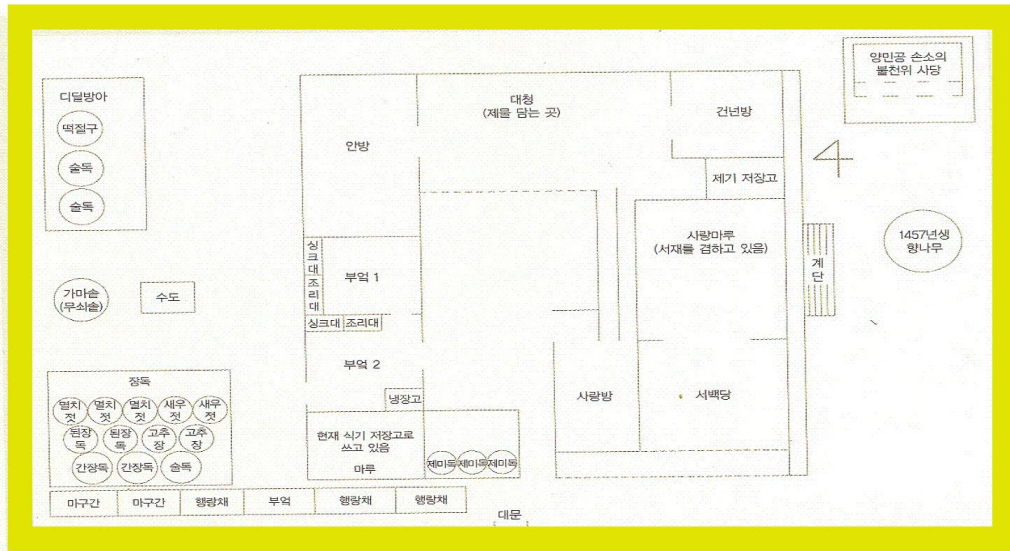
하루전날 사당을 안팎으로 소제하고 제기를 씻어서 여러개의 바구니에 가지런히 담아놓는다.

이 宗家는 행랑채와 사랑채가 일자형이며 몸채가 口자형으로 된 전형적인 조선 초기 사대부 주택(<그림 6>참조)이다. 집의 동북쪽에는 양민공의 불천위 사당(<사진 1>)이 있고 사당 앞에는 1457년 집을 지을 때 양민공이 기념 식수한 향나무(<사진 2>)가 있다. 祭禮에 쓰는 향과 떡을 담는 제기는 이 나무를 잘라 후손들이 만든다고 한다.

500년 이상 된 사당으로 들어가는 문의 기둥에는 6.25때 총탄이 비껴간 흔적이 있을 뿐, 전란에 따른 별다른 피해는 없이 지냈고 종부는 이를 조상들의 家護가 계셨기 때문이라 믿고 있다. 사당안의 신주는 불천위를 중앙에 모시고 고조위부터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신주 순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모신다.

제복으로 남자는 갓을 쓰고 흰 도포를 입는다.<사진 24>,<사진 25> 주부는 차례 지낼 때는 사당 안에 들어갈 수 없으나 茶禮를 지낸후 사당

60) 慶州 月城 손씨 大邱宗親會, 『良洞마을과 慶州 月城 손씨』, 2001, pp.2-8.



<그림 6> 손소 종가의 전개도1)

에서 반드시 四拜로 세배를 올린다. 또한 茶禮제수를 준비할 때는 평상복의 한복을 입으나 사당에 四拜를 올릴 때는 華服을 입는다. 茶禮때 적이나 떡을 피고 생을을 치는 일은 여자들의 소임이며 사당으로 제수를 옮기는 일은 문중의 젊은 남성들이 돕는다.

제기(<사진 6>~<사진 11>)는 유기를 쓰며 강신잔반과 현작잔반이 있다. 불천위나 기제사 때 사용하는 잔반과 시접(<사진 15>)과 달리 茶禮 때 쓰는 제기는 크기에서 차이가 있으며 茶禮에는 4대 조상을 모시므로 편의상 작은 잔반(<사진 6>)과 시접(<사진 7>)으로 개선하였다고 한다. 불천위의 잔 받침 지름은 18cm, 잔의 지름은 10cm정도인데 반해 正朝茶禮의 잔 받침 지름은 13cm, 잔의 지름은 5cm정도이다. 이를 보면 잔반은 시대를 거슬러 올라 갈수록 지름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宗家の 불천위 시접의 지름은 18cm 정도인데 반해 일반 시접은 15cm정도이다. 불천위의 수저길이는 32cm, 수저의 음식을 떠먹는 부분의 지름이 7.5cm 정도로 이는 일반 수저보다는 8-10cm정도 길다.



<그림 7> 손소 종가의 사당

2) 제수진설(<사진 10>~<사진 23>)

正朝茶禮의 제수는 간소하게 준비하며 손소 종가의 제수진설은 4열이다. 酒는 과거에는 청주를 썼으나 지금은 법주를 쓴다고 한다.

1열에는 考妣의 시접(시저2벌)을 맨 서쪽에 놓고 떡국, 잔반의 순으로 진설한다. 떡은 타원형으로 썰며 떡국을 끓이는 방법은, 맹물에 간장을 넣어 끓을 때 떡을 넣고 끓인 후 제기(양위분)에 담아 육장⁶¹⁾과 계란황백지단을 마름모꼴로 썰어 고명으로 얹는다.

2열에는 중앙에 삼적 1기(조기 2마리, 돔 2마리의 어적과 상어산적, 쇠고기로 만든 육적)와 적의 서쪽에 북어포 1기, 적의 동편에는 쇠머리 편육 1기를 놓는다.

3열에는 2열의 포 아래쪽에 쇠고기를 간장에 졸인 육장을 놓고 미나리, 무, 소금을 넣어 만든 침채를 적 아래에 놓으며 편육 아래에는 식혜를 내용물만 건져서 접시에 담은 후 붉은 대추를 세 쪽 썰어 얹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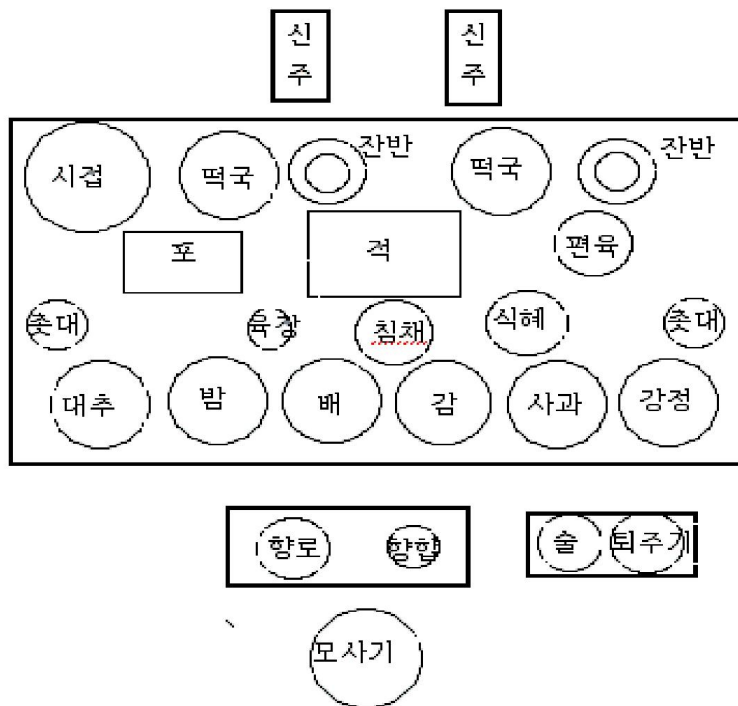
4열에菓는 짝수인 6품에서 8품으로 진설하는데,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생과(조, 율, 이, 시, 사과)의 순)와 조과(산자, 약과, 강정등)를 진설하며 8품을 쓸 때는 은행이나 잣을 쓴다. 배와 사과는 껍질을 깎지 않고

61) 육장: 떡국을 먹을때 간을 하는 장으로 쇠고기에 간장, 물을 넣어 짜고 진하게 끓인다. 경북지역에서는 꾸미장이라고 부른다.

아래 위를 도려서 쓰며 한 그릇에 담은 과일(의 숫자는 형편껏 된다. 생시에 손소 선생이 즐기지 않았던 과일인 수박은 쓰지 않고 전과 탕도 茶禮에는 쓰지 않는다고 하며 단, 正朝茶禮에는 떡국을 올리므로 침채를 차리고 추석에는 편을 올리므로 탕을 차린다. 正朝茶禮시 적에는 계적이 없으므로 적사지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3) 茶禮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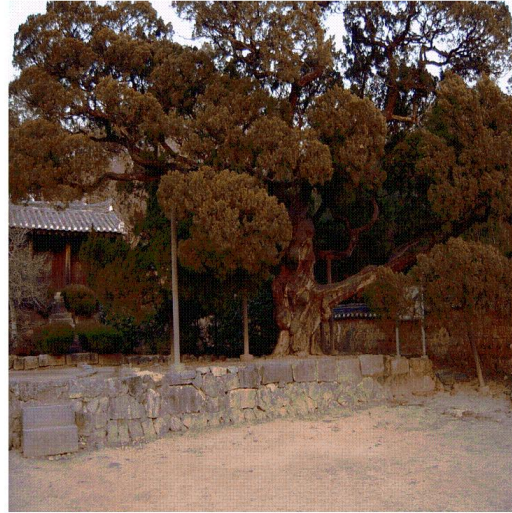
茶禮시간은 오전 9시경으로 사당에 제수를 진설하고(<사진 26>~<사진 28>) 사당 밖에서 모든 참사자들이 서립(<사진 29>)한 후 종손은 사당에 들어가 신주를 개독한다. 종손과 모든 참사자들이 참신례를 하고 강신례를 한다.<사진 30>, <사진 31>) 祭主가 고비위 전에 윗대로부터 차례로 헌작(<사진 32>)한 뒤 떡국 그릇에 수저를 꽂고 부복 후 낙시저 하며 일제히 절한다.(사진) 끝으로 납주하고 철상한다.



<그림 8> 손소 종가의 正朝茶禮 제수 진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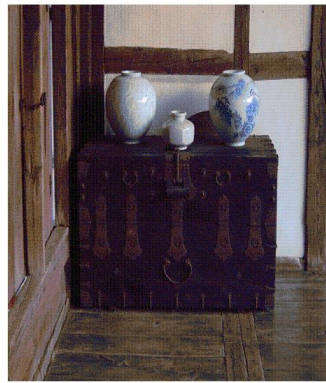
<사진1> 사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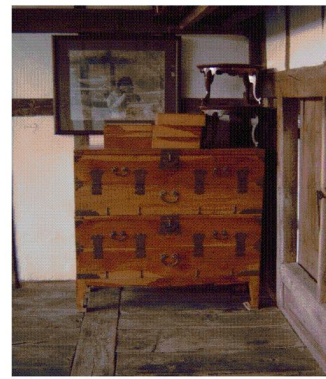
<사진2> 향나무



<사진 3> 열린 제기함



<사진4> 제기함- 1



<사진5> 제기함-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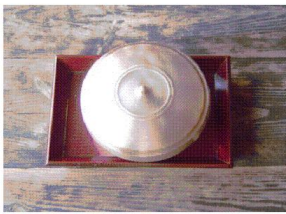
<사진6> 잔반



<사진7> 시접



<사진8> 떡국제기



<사진9> 퇴주기



<사진10> 떡국



<사진11> 술 주전자



<사진12> 포



<사진13> 적



<사진14> 편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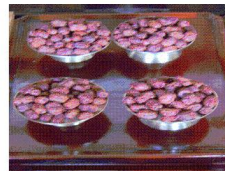
<사진15> 강신잔반,
시접



<사진16> 간장, 침채



<사진17> 식혜



<사진18> 대추



<사진19> 배



<사진20> 감



<사진21> 사과



<사진22> 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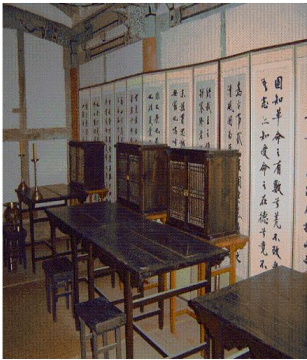
<사진23>유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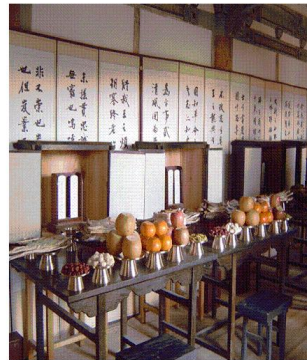
<사진24> 제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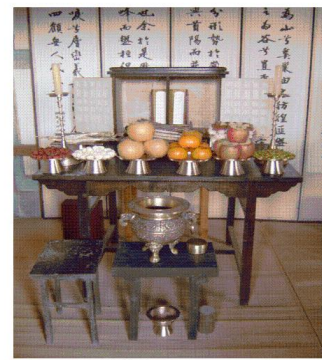
<사진25> 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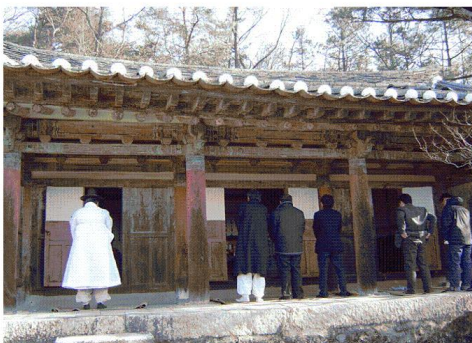
<사진26> 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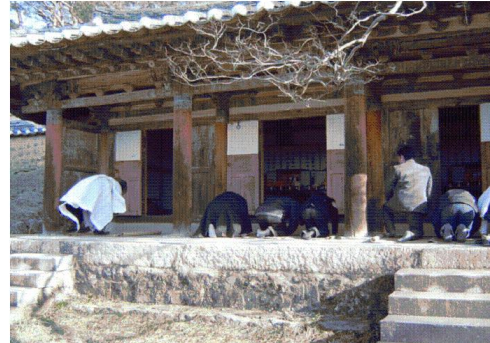
<사진27> 제수 진설-측면



<사진28> 제수 진설-정면



<사진29> 참사자 서립



<사진30> 참신



<사진31> 분향강신



<사진32> 헌작

2. 성주 청주 정씨 정구 선생 종가

鄭述(1543-1620)선생은 성주의 명산 七峯山에서 발원하여 伊川으로 흐르는 맑고 깨끗한 실개천을 臨水로 하여 자리 잡은 마을인 성주군 대가면 사월리 즉 유촌마을에서 태어났으며 조선조 유학사에서 처음으로 도학의 문을 연 寒暄堂 김굉필의 외증손이다. 鄭述의 가문은 외가와 처가를 따라 향토에 정착한 土族으로 시조는 고려 보성별장 鄭克卿이다. 鄭述 선생의 호는 寒岡, 자는 道可, 시호는 文穆公이다. 학문은 김굉필 선생의 도학을 전수하고 퇴계로부터 仁을 배우고 남명 조식 선생으로부터는 義를 배워서 조선시대 유학의 대통을 이어서 새로운 학통을 세워 실학의 연원을 확립하였다. 학문적 관심은 실용성에 주목하였으며 역사적 현실을 올바르게 파악하였고 역사적 위치와 사명을 정확하게 깨달았으며 현실의 부조리를 해부하여 바로 잡아 나갔다. 이러한 사상은 조선후기 이익, 안정복, 정약용 등으로 이어져 실학이 집대성되었다. 그의 학문의 연구대상은 온 우주 공간이었으며 경서, 병학, 의학, 역사, 천문, 풍수지리 등 모든 분야에 통

달한 대학자였다. 또한 예학이 특출하여 31세 때(1573년) 간행한 『家禮輯覽補註』⁶²⁾와 『五先生禮說分類』⁶³⁾ 『禮記喪禮分類』⁶⁴⁾ 『五服沿革圖』⁶⁵⁾는 예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예를 통하여 이웃과 사회, 국가생활을 이롭게 한다는 도덕지상주의적인 이론을 펼쳤다. 1583년(41세인 선조 16년)에는 회연서당을 지어 많은 인재를 배출하였으며 그로 인해 수륜면 수성리 지촌(갓말)에 정착하게 되었다.

이 종가의 종손은 2년 전에 타계하고 면접에 응한 김기는 정구선생으로부터 17대 종부이다.

1) 茶禮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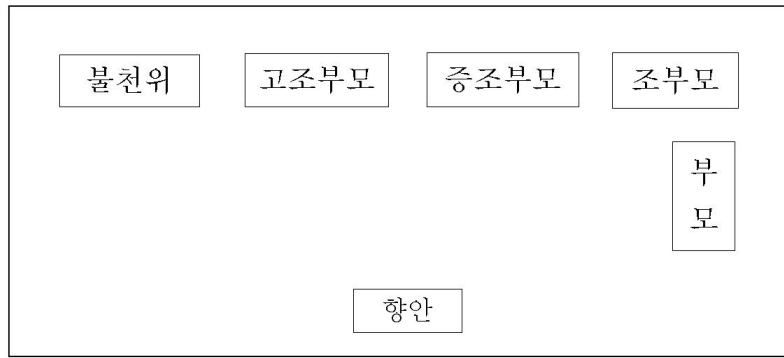
일주일 전부터 茶禮에 올릴 술, 유과와 엿을 만든다. 하루 전날 사당(<사진 33>, <사진 34>)소제를 깨끗이 하고 그믐날 저녁 잠자리 들기 전 부모님께 묵은세배를 드리고 다음날 아침에는 茶禮를 지내기 전 방안에 들어가서 세배를 드린다. 제복으로 남자는 옥색도포에 갓을 쓰고(<사진 37>, <사진 38>) 여자는 茶禮에 참석하지 않는다. 茶禮 제수 준비시 생을 치는 일은 남자들이 하고 적과 떡을 피는 일은 여자들이 하며 제기(<사진 36>)는 유기를 쓴다. 사당은 본채의 동쪽에 위치하고 神主는 좌를 上位로 하여 불천위, 고조 부모위, 증조부모위, 조부모위, 조부모 神主 아래에 부모위 순으로 모신다.(<그림 9>)

62) 『가례즙람보주』는 주자가례를 알기 쉽게 풀이한 예문이다.

63) 『오선생예설분류』는 송대의 성리학자인 정호, 정이, 장횡거, 사마광, 주희들의 예서를 모은 것이다.

64) 『예기상례분류』는 『예기』의 상례에 관한 부분만을 따로 뽑아 편찬한 책이다.

65) 『오복연혁도』는 1617년에 지은 책으로 상·제복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복제라는 것은 죽은 사람에게 대하여 혼수에 따라 服을 입는 제도이다.



<그림 9> 정구 종가의 사당

2) 제수진설(<그림 10>)

제수진설은 4열로 진설한다.

1열에는 考妣의 떡국, 잔반, 시접(시저 2벌), 적을 차린다. 떡국은 물이 끓으면 정사각형(가로 세로 2cm)으로 썬 두부와 동그랗게 썬 떡을 같이 넣어 끓인 후 그릇에 담고 그 위에 쇠고기 육장과 계란 황백지단을 마름모꼴로 썰어 장식한다. 특이하게 이 宗家에는 쇠고기 육장을 만들 때 쇠고기에 두부를 넣어 만들고 적은 1기로써 6가지 종류의 적을 올린다. 부추, 우엉, 배추로 전을 부쳐 소적으로 맨 밑에 놓고 두부와 고구마전을 그 위에 두며 명태와 북어포를 얹고 나서 돼지고기를 얹고 쇠고기나 닭을 차리되 밀가루를 묻혀 계란 옷을 입혀 익힌 것을 올린다. 맨 위에는 쇠고기를 포 떠서 참기름과 맛소금을 바르고 통깨를 뿌려 4개 정도 꼬지에 끼어 얹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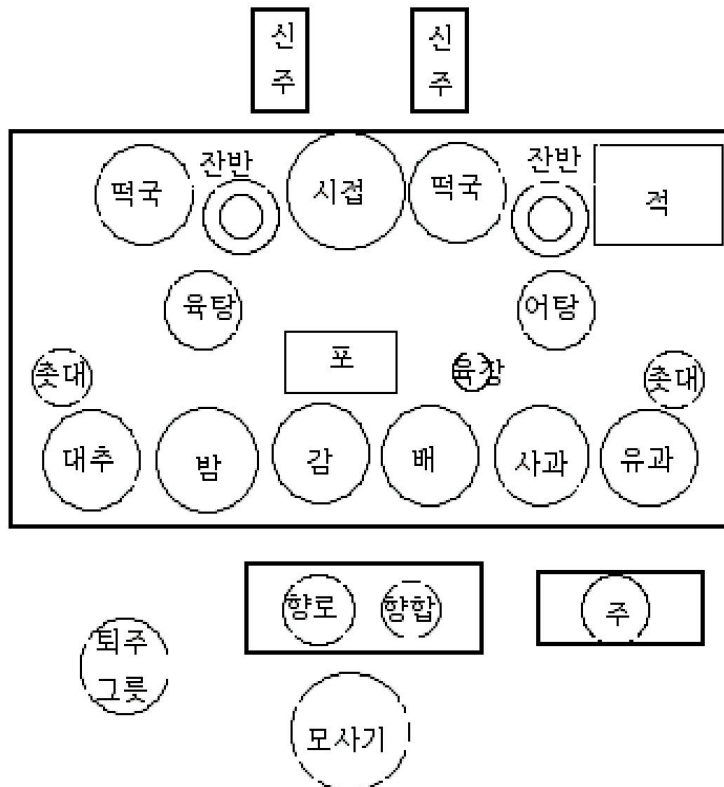
2열에는 육탕과 어탕 2기를 올리는데 육탕은 쇠고기와 돼지고기, 무, 다시마를 넣어 끓이고, 어탕은 피 문어와 홍합을 넣어 끓인다. 닭을 때는 탕기 안에 무와 다시마를 네모로 잘라서 넣고 그 위에 육탕과 어탕을 넣는다.

3열에는 포와 육장을 올리는데 포는 건대구포, 문어, 꼬지 낀 홍합포를

한 접시에 담아 올리며 간장은 쇠고기로 만든 육장을 올린다.

4열에菓는 4菓에서 8菓의 짝수로 놓는다. 조, 울, 시, 이, 사과인 생과와 옛·유과·강정 등의 조과를 쓰며 사과와 배는 껍질 채로 아래, 위만 도린 채 쓰고 조과는 집에서 직접 만든 것을 올린다. 祭酒(<사진 39>)는 집에서 빻아서 쓰는데 만드는 방법은 쌀 5되를 불려서 꼬들밥을 찐 후 식힌 밥에 누룩(3되)을 부어서 고루 섞어 물 한 바가지를 단지에 붓고 3-5일 지나서 부글부글 끓으면 감주(쌀1되에 물 3되 비율)를 8시간 만에 만들어 술독에 식혀 붓고 젖는다. 이틀 후 술이 완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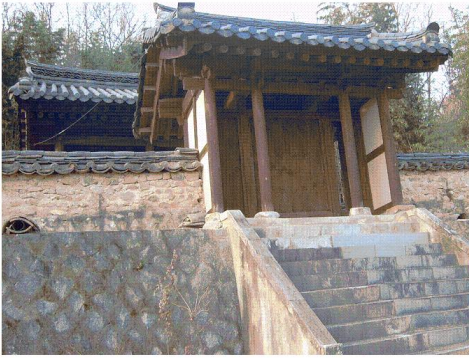
정구 宗家에서는 제수 마련 시에 파, 마늘을 쓰지 않고 ‘치’字가 든 생선과 식혜, 전류, 침채를 쓰지 않는다.



<그림 10> 정구 종가의 正朝茶禮 제수 진설도

3) 茶禮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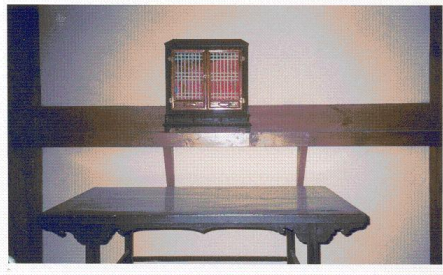
茶禮를 지내는 시간은 오전 9시경이다. 먼저 제수 진설, 참사자 서립, 신주개독, 강신, 참신(참사자 일동이 함께 재배), 祭主가 제상 앞에 跪坐하여 列位한 신위에게 차례로 헌작, 유식(시저를 떡국에 걸침) 후에 일동이 함께 절하고 俯伏하여 10-15분 동안 있다가 일어선다. 낙시저 후 일동이 재배로 사신하며 納主, 撤床의 순으로 茶禮를 마친다.⁶⁶⁾



<사진33> 사당 - 1



<사진34> 사당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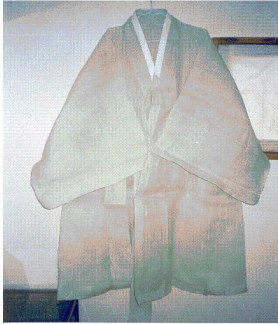


<사진35> 신주독



<사진36>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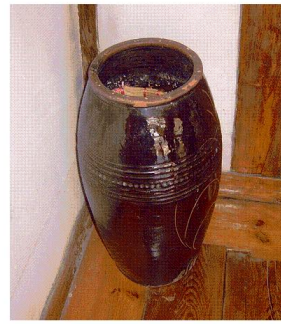
66) 淸州 鄭氏 文穆公派大宗會, 『會員名簿』, 대구:太陽企劃, 2000, pp.39-40.



<사진37> 제복



<사진38> 갓



<사진39> 주독

3. 현풍 포산 곽씨 곽재우 선생 종가

포산 곽씨 시조는 중국 송나라에서 귀화한 郭鏡으로 전한다. 청백사 郭安邦을 中始祖로 郭越의 셋째 아들인 곽재우(1552-1617)는 호는 망우, 시호는 충익공이다. 곽재우는 현풍 곽씨의 후예로서 강직하고 의연하며 원대한 천성과 도량을 타고나 남명 조식선생의 학통을 계승한 文武兼全의 민족영웅이었다.⁶⁷⁾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 왜적이 여러 고을에 침입하고 왕이 의주로 피난하자 의령에서 의병을 일으켰는데 그때 붉은 옷을 입고 싸웠기 때문에 ‘홍의 장군’이라 불리었다. 정유재란 때에는 경상좌도 방어사, 경상우도 조방장이 되어 싸우던 중 어머니가 세상을 뜨자 울진으로 돌아갔으며 후에 통제사 이순신 장군이 누명을 쓰고 고생하는 일에 통탄하여 벼슬을 멀리하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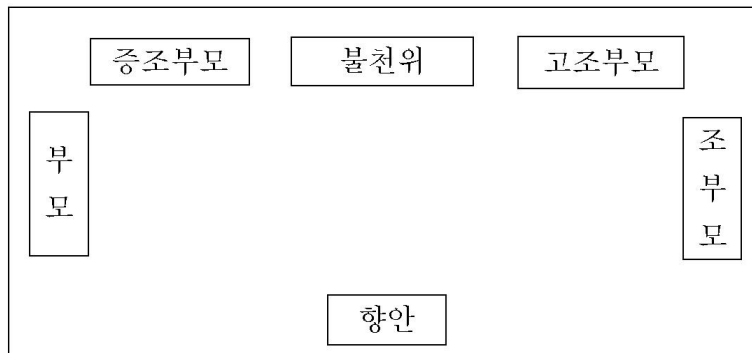
종손은 곽동환이며 조사시 면접자는 종사일을 하는 곽일태로 곽재우 선생의 12대손이다.

67) 홍우흠, 『修正國譯 忘憂先生文集』, 대구:신우출판사, 2003, p.29.

1) 茶禮준비

하루전날 사당 안팎을 소제한다. 이 宗家는 일년에 3번(설, 추석, 동지)의 茶禮를 지내며 서원에는 위패(<사진 44>)를 모셔두고 사당에는 신주(<사진 43>)를 모시고 있다.(<사진 40>~<사진 44>) 제복은 도포나 행의를 입고 유건을 쓴다.(<사진 45>) 제기는 유기를 쓴다.

여자들은 茶禮에 참석하지 않으며 차례제수를 준비할 때에는 과거에는 천담복을 입었으나 지금은 평상복 입은 채로 한다. 적과 떡을 피는 일과 생을 치는 일은 손소 종가와 동일하게 여자들의 몫이다. 사당은 안채의 동북쪽 높은 곳에 위치하며 사당 안 신주를 모시는 순위는 불천위를 중심으로 불천위 서쪽에는 증조부모, 동쪽에는 고조부모, 동쪽 벽에서 서쪽을 향해 조부모, 서쪽 벽에서 동쪽을 향해 부모를 모셨다.(<그림 11 >)



<그림 11> 광재우 종가의 사당

2) 제수진설(<그림 12>)

茶禮를 지내는 시간은 오전 10시경이다. 제수진설은 4열이며 酒는 범주를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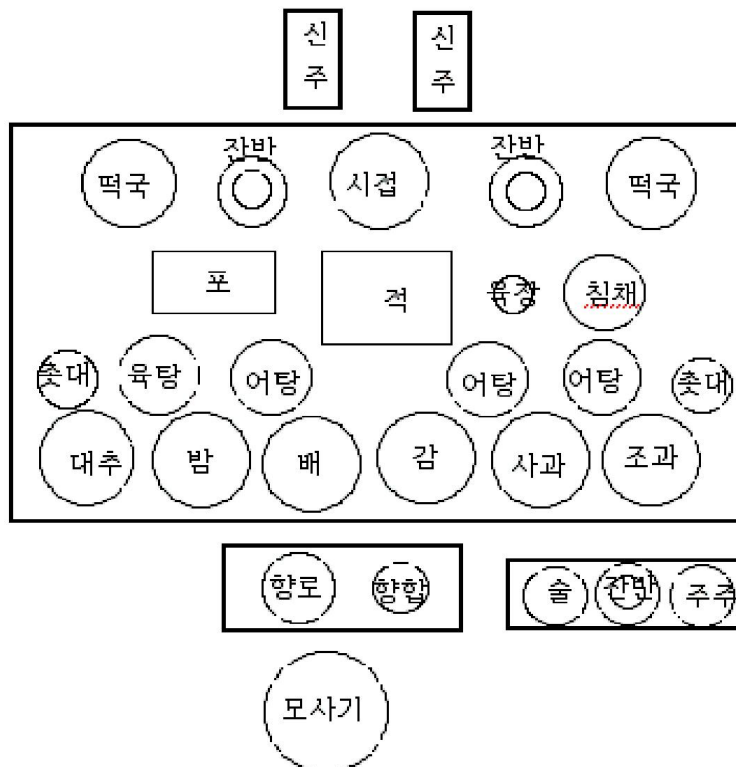
1열에는 시접을 중앙으로 하고 서쪽에 고위의 떡국, 동쪽에 비위의 떡

국을 놓으며 잔반은 각각 시점과 떡국 사이에 놓는다.

2열에는 문어와 북어포를 담은 포 1기를 서쪽에 놓고 포 동쪽에 생 것으로 돼지고기를 다리채로 담고 간과 내장을 담은 적을 놓고 쇠고기나 닭고기를 갈아서 만든 육장을 놓고 맨 동쪽으로 침채를 놓는다.

3열에는 모두 4그릇의 탕을 올리며 쇠고기로 만든 육탕 1기와 홍합, 문어 명태로 만든 어탕 3기를 西에서 東으로 놓는다.

4열에는 과일을 짝수로 올리는데 4품에서 8품을 쓰고 조, 울, 이, 시, 사과, 조과 순으로 西에서 東으로 진설하며 사과와 배는 껍질째 위, 아래만 도려서 쓰며 복숭아를 쓰지 않는다. 이 宗家에는 식혜, 전(갈랍)을 올리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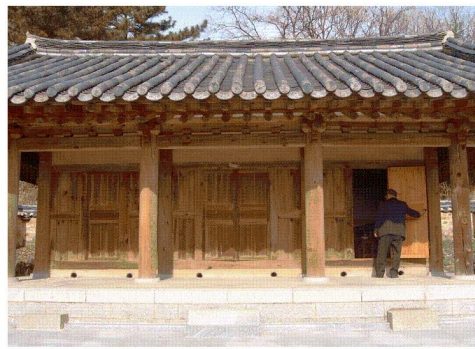
<그림 12> 광재우 종가의 正朝茶禮 제수 진설도

3) 茶禮절차

제수 진설, 참사자 서립, 신주개독, 참신, 강신, 헌작, 유식, 낙시저, 사신, 납주, 철상의 순으로 茶禮를 모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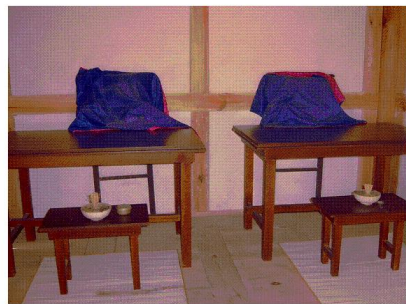
<사진40> 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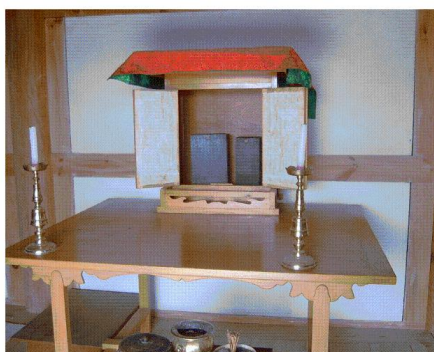
<사진41> 사당-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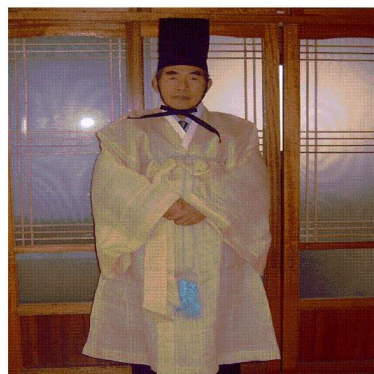
<사진42> 사당- 2



<사진43> 위패



<사진44> 신주



<사진45> 제복

4. 대구 경주 최씨 최흥원 선생 종가

대구 둔산동의 옷골마을은, 북쪽은 팔공산 來龍으로 병풍처럼 둘러 대암이 우뚝 솟아 있으며 동으로는 儉德峰이 높이 서 있다. 서쪽에는 긴등이 내려와 못 안골로 이어지며 남쪽으로는 느티나무 고목들이 숲을 이루고 있고 연못이 있다. 시냇가에는 옷나무가 많이 있었으므로 칠계 [(漆溪: 옷골)] 라 부르게 되었다.

경주 최씨 옷골 마을의 上系는 최치원으로 호는 孤雲 시호는 文昌侯이고 입향조는 대암 최동집으로 효종임금의 대군시사부이다. 최동집 선생은 1616년에 世居地 로서 정착한 이래 380여년간 자손들이 대대로 내려오며 지금까지 살고 있다. 崔興遠(1705-1786)선생은 조선 후기 학자로서 숙종 31년에 태어났다. 초명은 興源, 字는 太初, 호는 百弗菴으로 최동집의 5대손이다. 평생 동안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오로지 孔孟程朱를 본받아 인격도야에 일생을 바쳤으며 經學과 性理學에 몰두하면서 實踐躬行 [몸소행함] 으로 성인이 되려고 한 전형적인 선비로서 퇴계 선생의 敬 사상을 실천하였다.⁶⁸⁾

이 종가는 불천위 사당인 대묘와 별묘가 있다. 종가의 동북쪽에 위치하는 대묘는 1711년에 세워져 가묘로 이용되고 있으며, 1737년에 지어진 대암(최동집)선생을 모신 별묘는 동남쪽에 위치한다. 안채는 ‘ㄷ’자형의 구조로 최동집 선생이 승정 3년 1603년에 살림집으로 지은 것이다.⁶⁹⁾

면접에 응한 최진돈은 최흥원 선생의 9대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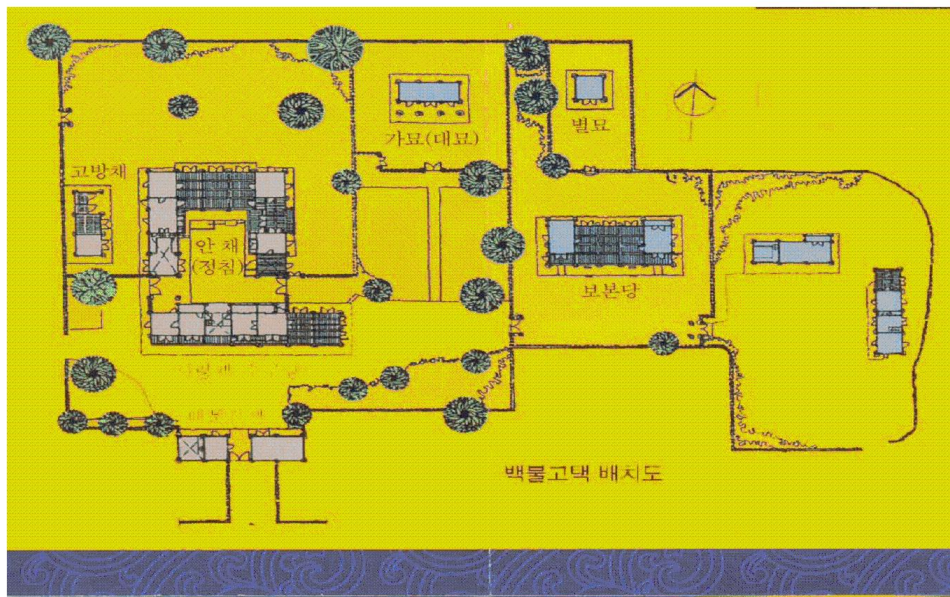
68) 慶北大學校 退溪研究所, 『百弗庵 崔興遠先生의 學問과 思想』, 2001, p.1.

69) 대구광역시, 도심속의 전통마을 둔산동 옷골마을 팸플릿자료.

1) 茶禮준비

하루 전날 사당(<사진 48>) 안팎을 소제하여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한다. 제복은 남자는 갓이나 유건을 쓰고 도포(<사진 56>)를 입으며 여자는 제사에 참석치 않는다. 종부는 제수를 마련할 때에는 일상의 한복을 입으며 적과 떡을 피고 생울을 치는 일은 여자들이 한다. 제기는 (<사진 51>~<사진 55>)유기를 사용하였다.

사당은 본채의 동쪽에 위치하며(<그림 13>) 사당 안 위패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천위, 고조부모위, 증조부모위, 조부모위, 부모위순으로 모신다.(<그림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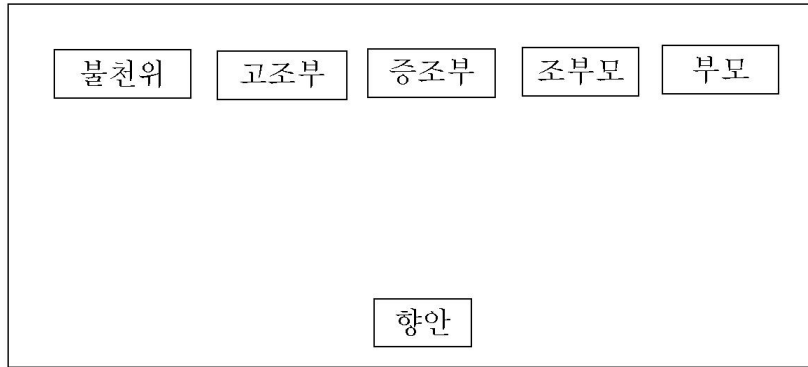


<그림 13> 최홍원 종가의 평면도

2) 제수진설(<그림 15>)

제수진설은 4열로 하며 酒는 동동주를 사용한다.

1열에는 양위분의 떡국과 잔반, 시접을 차리며 떡국의 떡은 동그랗게 썰어 끓으면 제기에 담아 간장과 육장으로 간을 하고 위에 고명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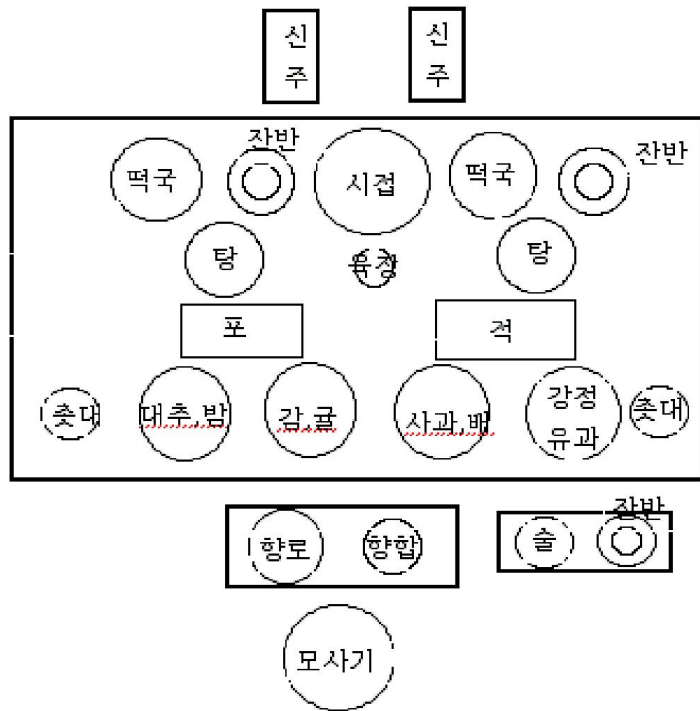
<그림 14> 최홍원 종가의 사당

계란지단을 마름모꼴로 썰어서 올린다.

2열에는 쇠고기, 무, 홍합, 다시마, 마른 문어를 넣어 끓인 도적탕 두 그릇을 올린다.

3열에는 육포 1기와 9가지의 적 1기를 올린다. 적은 아래에서부터 산적, 명태포, 고구마, 상어꼬지, 오징어 꼬지, 쇠고기나 돼지고기, 조기, 닭고기를 올리고 그 위에 쇠고기 꼬지를 올린다. 닭고기에는 적사지를 가로 2cm 세로 20cm로 잘라서 닭다리에 꽂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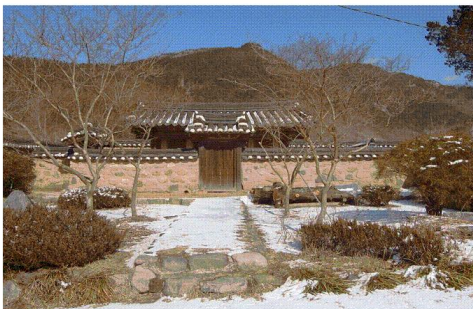
4열에는菓를 짝수로 차리되 4기를 초과하지 않으며菓의 종류가 많을 때는 두 종류를 한 접시에 담아서 차리는데 예를 들어 대추와 밤을, 감과 굴, 사과와 배를 각각 한 접시에 담아 쓸 수 있다.茶禮에 쓰는菓는 수북이 담아 밑에는 5개, 위에는 3-4개 올린다. 최홍원 종가에서는菓일 중 복숭아와 토마토는 쓰지 않으며 그 외에 침채와 식혜를 쓰지 않는다. ‘치’ 字 들어간 것은 쓰지 않는데 일반 기제사에서 숙채에 시금치는 쓰지 않는다고 한다.



<그림 15> 최홍원 종가의 正朝茶禮 제수 진설도

3) 茶禮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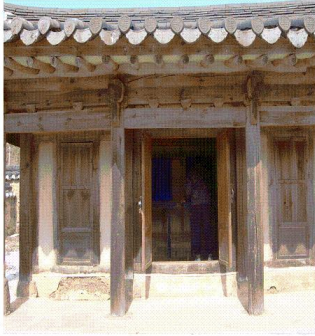
茶禮를 지내는 시간은 차손들이 茶禮를 지내고 온 다음에 지내므로 낮 12시 30분에 지낸다. 茶禮절차는 제수 진설, 참사자 서립, 신주개독, 강신, 참신(일동 재배), 헌작, 유식, 낙시저, 사신, 납주, 철상의 순으로 茶禮를 지낸다.



<사진46> 사당-1



<사진47> 사당-2



<사진48> 사당-3



<사진49> 위패-1



<사진50> 위패-2



<사진51> 제기



<사진52> 시접



<사진53> 잔반



<사진54> 병대



<사진55> 적대



<사진56> 제복

5. 성주 성산 이씨 이원조 선생 종가

성주군 월항면 대산동은 영취산을 뒤로 포근히 잠겨 있는 ‘한개’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성산 이씨 집성촌이다. 약 100 여 호의 가구에 300 여명이 올곧게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영남의 대표적 반촌이다.

성산 이씨의 시조공은 李能一이며 신라 말엽의 본피현 일대를 통치하던 호족으로 고려 태조를 도와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태조가 ‘能一’로 부르게 하고 星山君으로 봉해져 후손들이 星山을 관향으로 삼는다. 입향조는 시조공의 15세손으로 조선 초에 진주목사를 지낸 李友이다.

凝窩 이원조(1792-1871)선생의 자는 주현, 시호는 定憲이며 아버지 李亨鎭과 어머니 咸陽 朴氏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아들이 없던 백부에게 입양되어 宗系를 이었다. 순조 9년 18세의 나이에 대과에 응시 최연소 급제하였으나 당시 노론이 정권을 잡던 시기여서 남인의 인사는 당상관에 오르기가 어려웠다. 선생의 본령은 성리학에 있었다. 55세에 『性經』을 편술하였고 60세에 『復性圖說』, 68세에 『山房萬物緣』을 펴내었다.⁷⁰⁾

조사시 면접에 응한 이수학은 이원조 선생의 5대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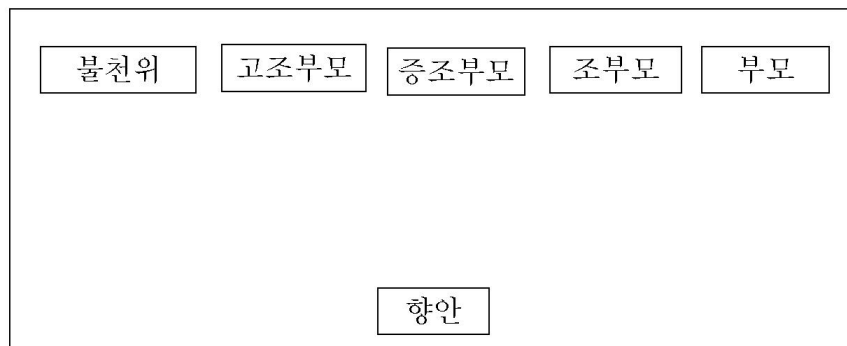
1) 茶禮준비

하루 전날 사당(<사진 57>)을 안팎으로 소제하여 깨끗이 한다.

이 종가의 구조는 안채가 ‘口’자형, 사랑채는 ‘ㄱ’자형 구조이다. 사당은 사랑과 안채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사당안의 신주는 불천위, 고조부모위, 증조부모위, 조부모위, 부모위 순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모신다. 제복은 유건을 쓰고 도포를 입는다.(<사진 63>,<사진 64>) 종부는 제수를 준비

70) 건들바우 박물관, 『先賢의 발자취』, 1994, pp.55-59.

할 때에는 천담복을 입는다. 적과 편을 꺾는 일은 여자들의 소임이고 제수 진설은 남자들이 하며 제기는 유기를 쓴다.(〈사진62〉)



〈그림 16〉 이원조 종가의 사당

2) 제수진설(〈그림 17〉)

제수진설은 4열로 진설한다. 酒는 법주와 정종을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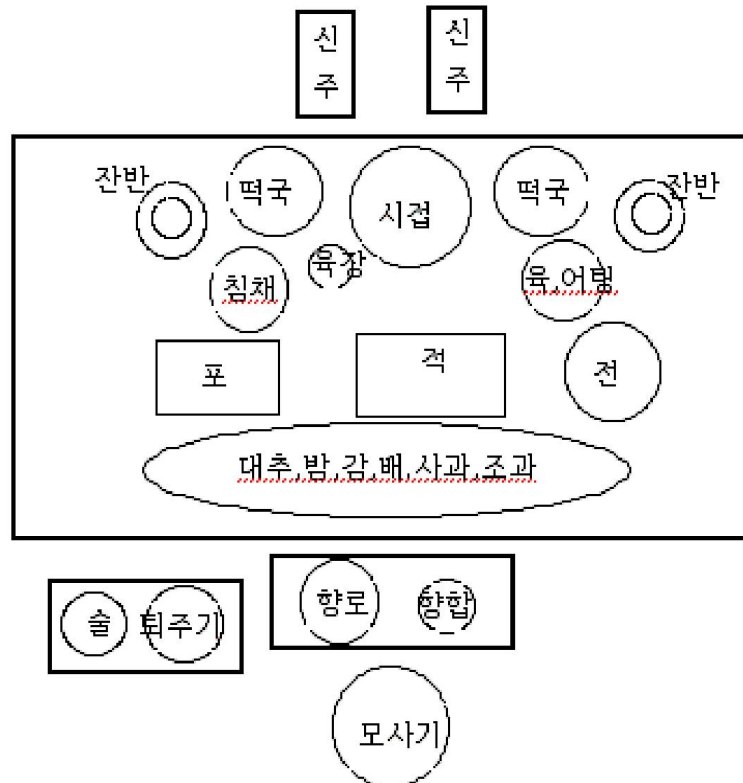
1열에는 고위의 잔반을 서쪽에, 비위의 잔반을 동쪽에 두며 시접을 중앙으로 서쪽에는 고위의 떡국, 동쪽에는 비위의 떡국을 올리고 시접의 아래 쪽에 육장을 놓는다. 떡은 타원형으로 썰며, 제기에 담을 때는 탕국에 떡을 넣어 떡만 건져 담는다.

2열에는 나박김치인 침채와 탕을 놓는다. 탕은 단 탕으로 탕 그릇 안에 무를 깔고 고기·마른명태·오징어·피문어·조개를 넣어서 담는다.

3열에는 적은 중앙에 놓고 서쪽에는 포, 동쪽에는 전을 놓는다. 포는 4가지를 아래부터 대구포, 북어포, 오징어, 문어를 함께 한 접시에 담는다. 적은 중앙에 차리며 아래에서부터 배추전이나 혹은 무·당근·쇠고기·맛살·햄·우영·파를 끼워 만든 섭산적의 야채전과 명태·대구로 만든 어적, 쇠고기·닭고기·돼지고기로 만든 육적, 쇠고기를 꼬지에 끼워 올린다. 전은 다진 쇠고기에 두부·부추·당근·파·양념(마늘)·버섯을 넣

어 등글납작하게 만들어 밀가루를 묻히고 계란을 입혀 지져서 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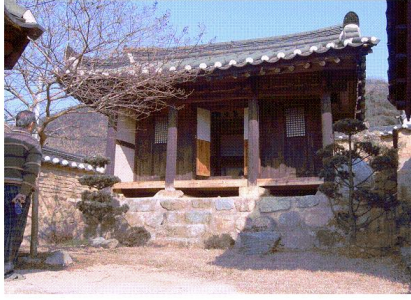
4열에는 생과와 조과를 한 기에 담아 중앙에 놓으며 과일은 진설시 한 쟁반에 6품이나 8품을 함께 담아서 쓰는데 아래부터 차례로 조, 율, 시, 이, 사과, 조과의 순으로 담는다. 이원조 종가에는 과일 중에는 복숭아, 어물 중에는 갈치, 고등어를 쓰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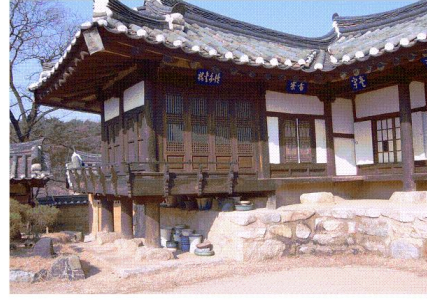
<그림 17> 이원조 종가의 正朝茶禮 제수 진설도

3) 茶禮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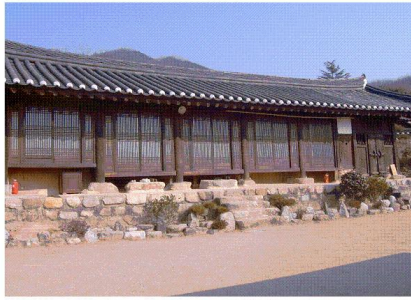
茶禮는 오전 10시나 11시에 지낸다. 茶禮 절차는 진설, 참사자 서립, 신주개독, 참신, 강신, 헌작, 유식, 낙시저, 사신, 납주, 철상의 순서로 茶禮를 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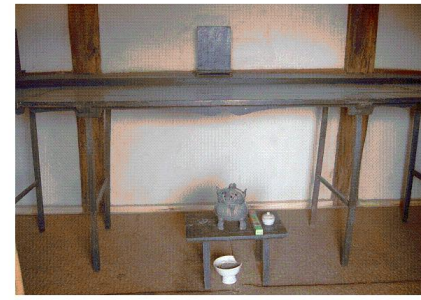
<사진57> 사당



<사진58> 사랑채



<사진59> 안채



<사진60> 제구-1



<사진61> 제구-2



<사진62> 제기



<사진63> 제복



<사진64> 유진

IV. 結 論

1. 正朝茶禮의 원형탐색

正朝茶禮의 원형을 탐색하고자 한 연구목적에 의거하여 문헌과 사례조사
의 正朝茶禮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正朝에 지내는 茶禮는 正至朔望과 俗節의 參禮에 차를 올리는 의
식에서 유래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었다. 正朝를 비롯한 俗節의 茶禮
는 간단한 饌品과 절식을 함께 올려 지내는 祭儀로써 그 절차는 매우 간
소하였다. 한강 鄭述(1543-1620)의 『한강집』 「答問任卓爾問」에는 사람
들이 俗節에 분묘에서 祭를 지내고 또한 신주에 茶禮를 설하는 것이 외람
된 것이냐는 물음에 鄭述선생은 외람되지 않으며 이는 소위 家禮의 俗節
參이니 묘제의 예에 의거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한기정은 俗節에는 술과
차를 올렸는데 술은 단작이며, 차는 17세기 초반까지는 올려진 것으로 보
인다고 하였다. 그 이후 차의 쓰임 유무에 관계없이 속절과 명절에 올리
는 祭儀는 茶禮라 명명되어져 약식의 祭儀를 대변하게 되었다고 하였고,
이러한 배경 하에 우리나라에서는 관습적으로 민속명절에 조상에게 올리
는 제사를 茶禮라고 해왔다.⁷¹⁾고 논하였다. 본 연구에서 고찰한 세시기에
서도 보았듯이 조선후기에는 서울의 풍속으로 민간에서 茶禮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임재혜(2002)는 茶禮의 명칭은 제
사양식과 상관없이 서울 및 경기지역의 말이 표준말화 됨으로써 명절제사
가 茶禮로 통일되어 일컬어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오늘날에도 茶禮라는
용어는 매년 설날과 추석의 명절아침에 조상에게 올리는 祭禮의 의미로

71) 한기정, 전계논문, p.84.

사용되고 있다. 1999년에 제정된 건전가정의례준칙에도 설날과 추석의 茶禮를 명절차례로 칭하고 茶禮는 명절 아침에 주손의 가정에서 지내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正朝茶禮는 본래 차와 술을 올렸던 參禮에서 유래하였으나 조선후기에는 차의 쓰임 유무에 관계없이 ‘茶禮’로 명명되었고, 이 용어는 서울을 중심으로 쓰여지다가 서울·경기지역의 말이 표준말화 됨으로써 명절제사가 茶禮로 통일되어 현재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茶禮 준비에 있어 문헌과 사례조사의 내용을 비교하면

1) 齋戒

세 문헌에서 正朝茶禮를 앞둔 하루 전에 물을 뿌려 쓸고 목욕재계하며 밤을 지낸다고 한 바와 같이 5宗家 모두 하루 전날에 사당 안팎을 깨끗이 소제하고 제구와 제수를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祭具

사당 안의 神主는 『증보사례편람』에 의하면 가장 윗대부터 서쪽에서 동쪽으로 모셔졌다. 사례조사 결과 손소 종가는 불천위를 사당 중앙에 모시고 서쪽에서부터 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의 신주를 모셨다.

곽재우 종가는 불천위는 중앙에, 고조부모는 불천위의 동쪽, 증조부모는 불천위의 서쪽, 동쪽 벽에서 서쪽을 향해 조부모를, 서쪽 벽에서 동쪽을 향해 부모 신주를 모셨다. 반면 정구 종가, 최홍원 종가, 이원조 종가는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불천위, 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순으로 신주를 모셨다. 이를 보면 손소 종가와 곽재우 종가는 불천위를 중앙에 모신데 반해 정구 종가, 최홍원 종가, 이원조 종가는 문헌에서와 같

이 윗대의 신주부터 서쪽에서 동쪽으로 모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광재우 종가의 사례는 『광례람』에 만약 사당에 신주를 한 줄로 모시기 어려우면 고조부의 신위를 가운데 모셔 남향하게 하고, 증조부는 동쪽에 모셔 서향하게 하고, 조부는 서쪽에 모셔 동향하게 한다⁷²⁾는 언급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神主와 연관지어 茶禮를 모시는 조상의 범위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들 5宗家の 경우 4대의 조상들은 물론 불천위를 함께 모시고 正朝茶禮를 지내고 있었다. 사실상 茶禮를 받드는 조상의 범위는 시대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었다. 조선시대 『경국대전』에는 3품 이상은 고조부모(4대 봉사)까지, 6품 이상은 조부모(2대 봉사)까지, 7품 이하 서민들은 부모만 제사 지낸다고 하였으나 갑오경장(1894)이후에 신분제도가 철폐되면서 고조부모까지 4대 봉사를 하게 되었다. 1969년 가정의례준칙을 제정하면서 조부모까지만 제사를 지낼 것을 권장하였으며 1999년 건전가정의례준칙에서도 제사의 대상은 祭主의 2대조까지만으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사례조사 결과 이들 宗家は 4대 봉사를 지속하고 있어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朝鮮時代 班家の 正朝茶禮 원형을 탐색하는데 귀중한 事例로서 가치를 지닌다고 하겠다.

한편 祭具 가운데 음식을 담은 祭器는 『광례람』과 『증보사례편람』을 보면 별도의 궤짝에 보관한다⁷³⁾고 서술되어 있다. 이러한 언급은 사례조사의 5宗家 모두 사당 안이나 대청에 제기함이나 제기장을 마련하여 茶禮의 절차를 마친 후 撤한 祭器를 깨끗이 씻어 정갈하게 보관하고 있는 것에서 확인될 수 있었다.

72) 수산저, 전게서, p.100.

73) 황필수 편저, 전게서, p.27.

3) 祭服

『사례집의』와 『증보사례편람』에 의하면 제복은 남성의 경우 관직에 따라 公服, 襴衫, 阜衫, 深衣, 道袍 등으로 盛服을 하고, 여성은 大衣와 長裙, 宵衣, 혹은 背子에 족두리(민 족두리)를 착용하였다. 사례조사 결과 경북지역 5宗家の 남성들은 유건이나 갓을 쓰고 옥색, 황색, 흰색도포를 입었으며 여성들은 茶禮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일상의 한복인 華服으로 茶禮준비에 임하였다. 손소 종가는 갓을 쓰고 흰 도포를 입었으며 정구 종가는 옥색도포에 갓을 썼다. 광재우 종가와 이원조 종가, 최홍원 종가는 유건을 쓰고 황색 도포를 입는 것으로 나타나(<표 4>)문헌에서 언급된 도포와 갓의 착용이 일반화 되어 전해오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 4> 5 宗家 남성의 正朝茶禮 제복비교

구분	손소 종가	정구 종가	광재우 종가	최홍원 종가	이원조 종가
제복	갓 흰색도포	갓 옥색도포	유건 황색 도포	유건이나 갓 황색 도포	유건 황색 도포

4) 祭需

문헌을 통해서는 正朝茶禮에 올린 湯餅, 漁, 肉, 脯, 蔬, 酒, 果 등의 제수의 종류만을 가늠해 볼 수 있을 뿐 정확한 진설 모습을 파악하기는 어려웠으나 사례조사의 5宗家에서는 모두 4열로 제수를 진설하고 있었으며, 공통적으로 올린 正朝의 제수는 떡국, 술, 과, 육장, 포, 적(<표 5>) 등이었다.

宗家에 따른 특이사항으로는 손소 종가는 포 한 가지, 적 3가지, 편육, 침채, 식혜를 1기씩 올렸다. 정구 종가는 탕 2기, 포는 3가지를 1기에 담

아 올렸으며 1열에 6적을 1기에 담아 진설하였다. 광재우 종가는 포는 2가지, 생적 3가지, 침채를 각각 1기씩 올렸으며, 탕은 4기를 올렸다. 최홍원 종가는 탕 2기, 포 1기, 적은 9가지를 1기에 담았고,菓는 4기를 초과하지 않게 2종류씩을 한 접시에 담아 올렸다. 이원조 종가는 육탕과 어탕을 한 그릇에 담아 올렸으며 침채, 포 4가지, 적 6가지, 전을 각 1기씩 올렸고, 과일은 모두 한 쟁반에 담아 올리는 특징을 보였다.

이상을 보면 正朝茶禮의 祭需는 宗家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節食인 떡국을 중심으로 간소하게 음식을 마련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상이 생전에 좋아하시거나 싫어하셨던 음식의 종류를 염두에 두고 준비하였는데 예를 들면 이원조 종가, 최홍원 종가, 광재우 종가에서는 복숭아를, 손소 종가는 수박을 쓰지 않았다. 공자도 과일 종류에는 복숭아가 제일 하치이니 쓰지 않는다⁷⁴⁾고 언급한 바가 있다.

셋째, 正朝茶禮를 지내는 시간과 절차를 비교해보면, 문헌에서 正朝茶禮의 시작 시간을 이른 아침으로 기술한 바와 같이 최홍원 종가(차손들이 각각 차례를 지내고 온 다음에 종가에 모여 지냄)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오전 9시에서 10시경에 茶禮를 지내고 있었다.

正朝茶禮의 절차는 강신과 참신의 순서, 유식과 낙시저 절차의 유무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문헌과 사례조사에서 祭需陳設, 序立, 神主開櫝, 降神, 參神, 獻爵, 侑食, 落匙箸, 辭神, 納主, 撤의 순서로 이루어졌다.

사례 가운데 손소 종가, 광재우 종가, 이원조 종가에서는 參神후 降神의 절차를 행하는 차이를 보였다. 한편 문헌상에는 음복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으나 사례조사에서는 정성으로 만든 제수를 茶禮를 지낸 후 자손들이 모여 나누어 먹는 중요한 행사로 행하고 있었다.

74) 황필수 편저, 전계서, p.52.

<표 5> 5 宗家의 正朝茶禮 제수 비교

구분	손소 증가	정구 증가	곽재우 증가	최홍원 증가	이원조 증가
떡국	고비위 각1기	고비위 각1기	고비위 각1기	고비위 각1기	고비위 각1기
장	1기(육장)	1기(육장)	1기(육장)	1기(육장)	1기(청장)
포	1기(북어)	1기(3가지: 건대구포, 문 어, 홍합포)	1기(2가지: 문어, 북어포)	1기(육포)	1기(4가지: 문어, 오징어, 북어포, 대구 포)
적	1기(3가지: 육적, 상어산 적, 어적)	1기(6가지: 쇠고기 꼬지, 닭·쇠고기, 돼지고기, 명태·북어포, 밭꼭식, 채소적)	1기(3가지생 적:내장, 간, 돼지고기)	1기(9가지: 쇠고기 꼬지, 닭고기, 조기, 쇠고기·돼지 고기, 오징어 꼬지, 상어꼬 지, 고구마, 명 태포, 산적)	1기(6가지: 쇠고기 꼬지, 돼지고기, 닭 고기, 육적, 어 적, 야채적)
침채	1기	×	1기	×	1기
탕	×	2기 (육탕, 어탕)	4기 (육탕1, 어탕 3)	2기(도적탕: 쇠고기, 문어, 홍합, 다시마, 마른문어)	1기 (육탕, 어탕)
진	×	×	×	×	1기
편육	1기	×	×	×	×
식혜	1기	×	×	×	×
과	6품에서 8품 의 각1기	4품에서 8품 의 각1기	4품에서 8품 의 각1기	4기 (4접시를 초 과하지않음)	1기(6품에서 8품을한번에 모아담음)
술	1병	1병	1병	1병	1병

손소 종가는 남성들은 사랑채에서, 여성들은 안채에 모여서 음복을 하였고 종손은 외상을 받았다. 또한 손소 종가에서는 지금은 행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封送이라 하여 연로해서 茶禮에 참석하지 못한 친척 어른의 경우 茶禮지낸 음식과 친척 댁에서 제사에 쓸 음식으로 술 한 병, 과일 2가지, 특별한 한과를 인편으로 보내었다고 한다. 이원조 종가에서는 지금도 제사에 참석하지 못한 어른 댁에 음복한 음식으로 떡, 적, 과일을 접시에 담아 인편으로 보내고 있으며 정구 선생 종가는 茶禮를 지낸 후 대청에서 茶禮에 참석한 분들만 모여 음복을 한다.

<표 6> 正朝茶禮의 절차 및 시간비교

구분	절차	제수	서립	신주	참신	강신	참신	헌작	유식	낙시	사신	남주	철	차례시간
		진설		개독						저				
문현	사례집의	○	○	○		○	○	○	○	○	○	○	○	이른아침
	광례람	○	○	○		○	○	○			○	○	○	
	증보사례 편람	○	○	○		○	○	○			○	○	○	
사례	손소 宗家	○	○	○	○	○		○	○	○	○	○	○	아침 9시경
	정구 宗家	○	○	○		○	○	○	○	○	○	○	○	아침 9시경
	곽재우 宗家	○	○	○	○	○		○	○	○	○	○	○	아침 10시경
	최흥원 宗家	○	○	○		○	○	○	○	○	○	○	○	낮 12시 30분
	이원조 宗家	○	○	○	○	○		○	○	○	○	○	○	아침10- 11시경

2. 正朝茶禮의 현대적 의의

慶北地域을 중심으로 한 班家の 사례조사를 통해 正朝茶禮의 현대적 의의를 몇가지 논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正朝茶禮는 개인의 뿌리의식과 자아정체성 확립의 토대가 된다.

면접에 응한 손소 종가의 종부는 살아계실 때는 효를 다하고 돌아가셨을 때는 정성을 다해야 하므로 正朝茶禮는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면서 돌아가신 조상을 뵙고 살아 있는 자손이 새해인사를 드리는 시작이라고 하였다.

제사를 1년에 십여차례 지내는 정구 종가의 종부는 물질화, 산업화시대인 현실에서는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宗家の 전통을 지키는 것이 힘들 수도 있지만 설날 아침 茶禮를 지내는 것은 조상에 대한 추모이며 “조상 없는 자손이 없다”는 뿌리의식과 자아정체성의 확인이라고 강조하였다.

正朝茶禮는 조상이라는 대상을 존재로 행해지는 禮의 표현으로 조상과 나에 대한 관계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곧 자아정체성의 물음에 해답을 가져올 수 있다. 茶禮에 임하기 위해 재계하여 정성을 다함으로써 조상과 부모를 만날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역사의 흐름이나 인종, 지역에 따라 변하거나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다. 儒敎思想體系에서 孝가 강조되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에 相應하는 자녀의 자연스러운 본성인 仁의 발현이기 때문이다.

둘째, 正朝茶禮는 가족의 화목과 공동체 의식함양의 계기가 된다. 공동체 의식이란 나와 공동체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공동 운명을 지닌 존재라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공동체

의식을 소유하고 있을 때 상호간에는 상부상조와 협동 단결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이원조 종가의 종손은 면접에서 正朝茶禮는 돌아가신 조상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시로 조상의 영혼에 음식을 바쳐 정성을 표하는 禮節이므로 뿌리를 찾는 몸짓, 보은의 도리, 경천애인의 숭고한 정신이 담겨져 있는 일이며 가족과 친족의 화목을 이루고 의례를 올리는데서 誠과 敬과 信의 덕목을 기리는 인격형성의 교육장이 된다고 언급하였다.

사례조사에서 正朝茶禮의 마지막 절차인 음복은 제사를 마치고 참사자들이 제사에 사용된 술이나 다른 제물을 먹는 의식이다. 이처럼 함께 나누어 먹는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과 인간의 친밀성에 대한 믿음의 행위이다. 혈연집단과 함께 나누는 음복은 조상에게 바친 음식의 정성과 복됨이 가정 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주변으로 나누어진다. 이것은 사회의 출발점인 가정에서 공동체 의식이 발아되고 이웃으로 확산되어 가는 것이다.

오늘날 현대에 합당한 茶禮형식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종교, 직업, 장소, 가족제도,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가장 합당하고 편안하며 人和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지적된다. 그러나 반드시 조상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리며, 가족간 화합을 도모하는 祭禮의 근본적 의미는 변하지 않으면서 절차와 형식을 엄숙한 것에서 좀 더 편안하고 즐거운 쪽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가정에 따라 正朝茶禮를 반드시 음력 1월1일이 아닌 양력 1월1일에 지내고 있는 것에서도 반영된다. 김시황⁷⁵⁾은 正朝茶禮를 양력 1월 1일에 지내야 함을 강조하면서 “세계가 국제화, 세계화로 치닫고 있는 현대에 한 나라 안에 같이 살고

75) 김시황, 전계서, pp.234-248.

있는 사람들의 비슷한 행사는 가급적 통일 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편리하고 능률적이다. 민속절의 굴레에서 벗어나 반드시 새해 첫날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 볼 때 正朝茶禮를 지내는 시간과 장소는 각 가정에 따라 가족의 화목과 공동체 의식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될 것으로 예견된다.

셋째, 正朝茶禮는 협동과 화합을 바탕으로 한 사회화 교육의 장이다. 正朝茶禮에 참여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부산물은 인간의 사회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사회화란 한 인간이 그가 속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해가는 과정, 즉 그 공동체의 언어, 사고방식, 역사, 생활관습, 다른 구성원들과 관계를 규제하는 도덕적 규범을 학습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正朝茶禮 행례의 기본단위는 사회생활의 출발점이 되는 가정을 바탕으로 행해지는 의식이다. 茶禮를 지낸다는 것은 조상에 대한 감사와 공경의 마음을 가르치고 나아가 가족이 제물을 마련함에 있어 협동의 원리로 형제간의 한마음 한 뜻인 우애심을 확인하며 음복의 절차를 통해 나눔의 미덕을 공유하는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茶禮는 전통의 답습이 아니라 산업화, 도시화로 잃어버린 우리의 지난날 가족중심의 자연스런 윤리적 덕목들을 회복하는 기회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정에 있어 正朝茶禮는 그 의식의 역할을 통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회와 국가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초석으로 생각된다.

이상 朝鮮時代 班家の 正朝茶禮에 관한 사례연구를 토대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첫째, 朝鮮時代 班家の 正朝茶禮는 그 의미와 정신이 매우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사 가운데 응답자들이 宗家로서

正朝茶禮를 포함한 집안 내 제사유지에 경제적인 여건이 뒤따라야 함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듯이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뒷받침이 함께 있어야지만 正朝茶禮의 현대적 의의도 지속적으로 이어져 우리 고유문화의 일환으로 영속성을 갖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앞으로 정책적인 지원과 관심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해본다.

둘째,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 본 연구에서는 세 권의 문헌에 한정지어 내용을 고찰하고, 慶北地域의 다섯 宗家만을 임의로 선정하여 正朝茶禮를 분석하였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문헌과 사례 조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연구결과가 일반화 될 수 있는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I. 저서

- 건들바우 박물관, 『先賢의 발자취』, 1994.
- 경주 월성 손씨 대구 종친회, 『良洞 마을과 慶州 月城 손씨』, 2001.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한국민속의 세계』 2권, 서울:창작마을
2001.
- _____, 『한국민속의 세계』 5권, 서울:창작마을
2001.
- 구영분, 『한국의 전통문화와 예절』, 서울:형설출판사, 2003.
- 국립문화재연구소, 『종가의 제례와 음식』 1, 2, 3권, 서울: 김영사,
2003.
- 권광욱, 『육례 이야기』, 제2권 지, 제 3권 인, 서울:해돋이, 1994.
- 권영한, 『사진으로 배우는 관·혼·상·제』, 서울:전원문화사, 1998.
- 김득중, 『실천예절개론』, 서울:교문사, 1997.
- 김시황, 『백불암 최홍원 선생의 학문과 사상』, 경북대학교
퇴계 연구소, 2001.
- _____, 『韓國禮學散故』, 서울:푸른사상, 2002.
- 김용덕, 『한국 민속문화 대사전』, 서울:창솔, 2003.
- 김장생, 「가례집람」, 『사계전서』,
- 김창선, 『상례와 제례』, 서울:자유문고, 2000.
- 김한경, 『家禮便覽』, 韓日製圖士, 1986.
- 김형수, 이창희·최순권 역, 「농가십이월속시」, 『조선대세시기』,

- 국립민속박물관, 2004.
- 대구은행, 『거대한 버팀목 宗家』, 향토와 문화 29.
- 문옥표·정양완 외 역주, 『朝鮮時代 冠·婚·喪·祭』(V) 제례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
- 박명옥·최배영, 『테마가 있는 예절 이야기』, 서울:새로운사람들, 2004
- 성주군, 『성주 향토음식의 맥』, 2003.
- 심재희 역, 『예기』, 서울:자유문고, 2000.
- 육우, 정유화역, 『다경』, 서울:남답산방, 2000.
- 윤경혁, 『차 문화고전』, 서울:홍익재, 1999.
- 이길표·최배영, 『일반생활 예절』, 서울:청목문화사, 2003.
- 이무영, 『한국가정의례』, 한국예절교육연구회, 2002.
- 이순형, 『한국의 명문종가』,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 이연자, 『종가 이야기』, 서울:컬처라인, 2001.
- 이영춘, 『차례와 제사』, 서울:대원사, 1994.
- 이울곡, 김성원역, 『격몽요결』, 서울:명문당, 1986.
- 이재, 우봉이씨 대종회, 『사례편람』, 서울:명문당, 1992.
- 조선일보사, 『사진으로 보는 가정의례』, 1988.
- 조후중, 『세시풍속과 우리음식』, 서울:한림출판사, 2002.
- 주희, 임민혁 옮김, 『주자가례』, 서울:예문서원, 1999.
- 청주 정씨 문목공파 대종회, 『회원명부』, 대구:태양기획, 2000.
- 최영년, 이창희·최순권역, 『명절풍속』, 『조선대세시기』,
국립민속박물관, 2004.
- 쿠켄, <정월 명절 상차림> 2002. 2
- 편집부, 『新舊 冠婚喪祭全書』, 대구:청암출판사, 1989.
- 한국사상 연구회편저, 『조선유학의 학파들』, 서울:예문서원, 1996.

- 한국전통의례연구회, 『정통가정의례백과』, 서울:일송미디어, 1996.
- 홍석모, 이석호역, 「동국세시기」, 『조선세시기』 서울:동문선, 1991.
- 홍우흠, 『修正國譯忘憂先生文集』, 대구:신우, 2003.

II. 논문 및 학회지

- 강현숙, “조선후기 제의의 시간·공간적 의미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강희정, “불천위 제사의 집사분정에 나타나는 종합체계와 연령의식”, 민속연구 제9집.
- 공영립, “제례의 기원과 본질”, 『민속학술 자료총서』 3차 우리 마당터, 2002.
- 김명배, “백장청규의 다례연구”, 한국차학회지 제6권 제1호, 2000.
- 김명자, “세시풍속의 순환의미”, 『한국 민속학총서』 6권, 1990.
- 김미숙, “한국 불교 사찰의 헌공다례,”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김옥수, “우리나라 찻잔의 조형미에 관한 고찰”,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김인옥, “전통제례에 관한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제 36권 1호, 1998.
- 두경자, “제례의 검토와 제례 재구성모델 연구”, 한국가정 관리학회지 제 18권 3호.
- 박경란, “한국제례문화의 지역적 특성 비교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 손민영, “한국차례의 사적 고찰,” 한국 식문화 학회지, 1989.
- 안혜벽, “전통제례의 윤리적 의미고찰”, 『민속학술 자료 총서』 3차, 우리 마당터, 2002.

- 윤숙경, “안동지역의 제례에 따른 음식문화(I)”, 한국식생활 문화학회지, 1996.
- _____, “안동지역의 불천위제례의 제수”, 한국식생활 문화학회지, 1996.
- 이수은, “영남지방의 제례에 관한 조사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 이홍섭, “제례문화에 대한 고찰”, 한국의 예절 제4호, 2002.
- 이혜자, “한국불교의 다례”, 한국차학회지, 제 7권 제 1호, 2001.
- 임재해, “단오에서 추석으로” 『민속학술자료총서』 4차, 우리마당터, 2002.
- _____, “설과 보름의 대립적 성격과 유기적 상관성”, 『민속학술자료총서』, 우리 마당터, 2002.
- _____, “설 민족의 형성근거와 시작의 시간인식”, 『민속학술자료총서』 4차, 우리 마당터, 2002.
- 장성현, “제례음식과 의식에 관한 인지도 조사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정영주, “조선후기 반가의 불천위제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한기정, “조선시대 상·제례를 통해본 헌다의 고찰”,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허충순, “한국 전승 다례의 현대적 고찰”,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 홍금이, “고려시대 궁궐다의 고찰”,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황명희, “전통제례에 대한 현대적 재조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ABSTRACT

The Study on JeongJoChaRae by Noble Families in ChoSun Dynasty

-Especially focused on Kyungbuk District-

Kim, Kil Ryeong

Major in Propriety and Tea-ceremony

Dept. of Cultural Industr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thesis arranged the concept and contents of JeongJoChaRae-service for ancestors on New Year's Day- on the ground of literature. I analyzed many cases of JeongJoChaRae served by noble families, particularly on KyeongBuk District. Futhermore, I searched for the original form of JeongJoChaRae, and reviewed its significance in the modern society.

As for the literatures, I looked through SaRaeGipUi(1887),

GwangRaeDam(1893), ZungBoSaRaePeunRam(1900), and surveyed five head families as models; WolSeong SonSsi SonSo, the head family in KyungJu (1433-1484), CheongJu JungSsi CheongGu in SeongJu (1543-1620), PoSanGwakSsi GwakJaeU in HyeonPung (1552-1617), GyeongJuChoeSsi ChoeHeungWon in DaeGu (1705-1786), SeongSanISsi IWonJo in SeongJu (1792-1781).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As results of the comparison and analysis of JeongJoChaRae through the literature and the case study, I could find that all the five head families cleaned the shrine thoroughly inner and outer one day before the service and they prepared service utensils as the literature says ; service family should broom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shrine splashing water and perform their ablutions.

When it comes to the service costumes, I found there were some differences according to sex and government positions as shown in the literature. But through the case study I could get to know that the men in KyungBuk District wore YuGun or Gat and DoPo, which varied in colors from family to family ; white, jade green or golden color.

Also, from the literature I found that ancestral tablets were placed from west to east by the order of great-great-grand parents, great-grand parents, grand parents and parents. However,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case study, the position for BulChenWyu on the table

was somewhat different although the rule that ancestral tablets should be placed from west by the order of the ancestors from west was kept in all the five head families in KyungBuk District.

Among things needed in the sacrificial service, Sacrificial food was laid in 4 rows. Liquor, Dukguk, fruits, CheongJang, sweet drink, cooked vegetables, Gimchi and soup were common food. Brassware was used in all the five head families' houses. And it was kept clear everyday because it was used only for ritual.

The service time of JeongJoChaRae was different more or less, but all the families except ChoeHeungWon head family performed a service at around 9 or 10a.m.

As for the service order, they usually did ChamSin after GangSin. But according to the result of examining literature, SonSo head family, GwakJaeU head family and IWonJo head family did GangSin after ChamSin, although CheongGu head family and ChoeHeungWon head family did ChamSin after GangSin. And CheongGu head family was different from the ChoeHeungWon head family. They performed BuBok after YuSik.

Procedures of NapJu and Cheol for placing ancestral tablets are progressed after sacrifice. SaRaeGipUi, ZungBoSaRaePeunRam say hosts and hostesses did NapJu, but GwangRaeDam say hosts did it alone. These all three records say that hosts did it alone in the case of Cheol.

The literatures did not present UemBok as a step after Cheol, but

in the case study it was considered very important as what makes descendants get together and has them enjoy food together so that they may be in harmony and un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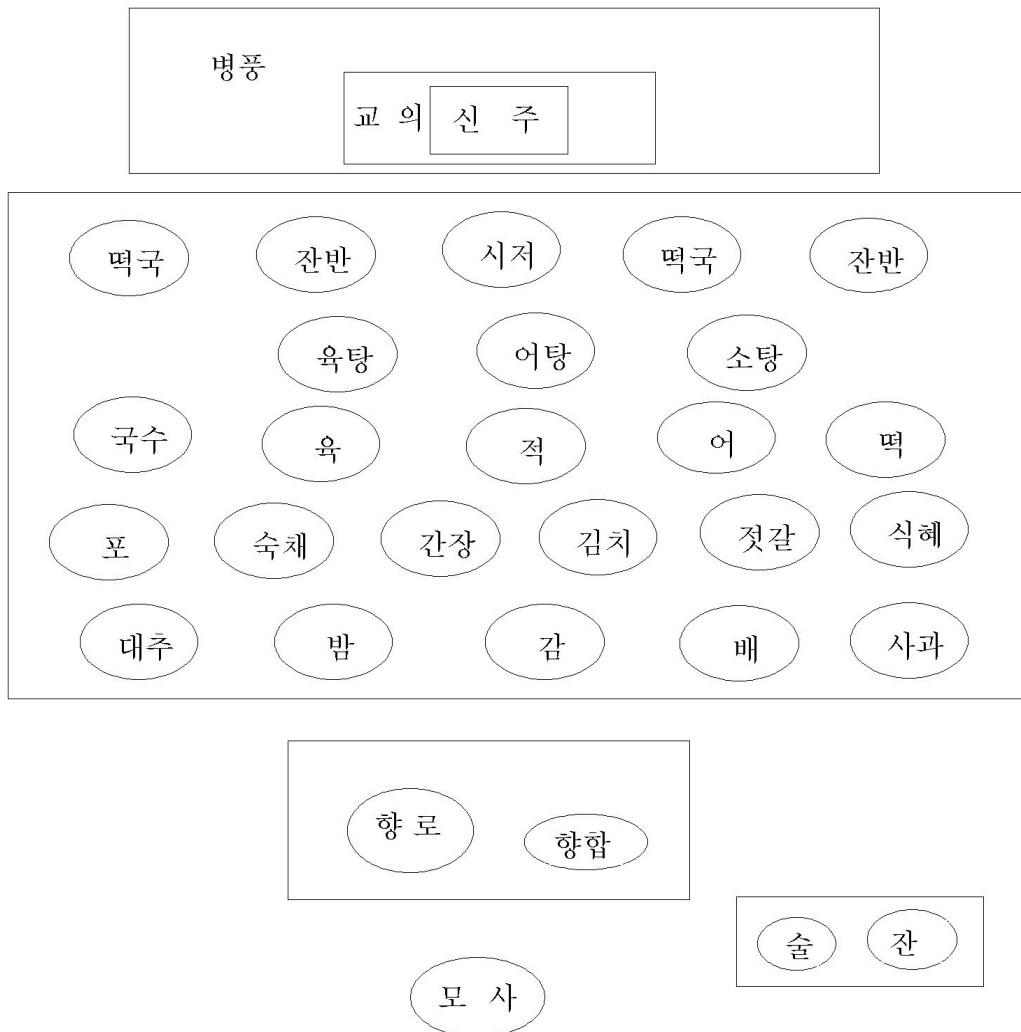
2. Considering the modern meaning of JeongJoChaRae on the ground of the case analysis, I can say three contents to sum up. First, by doing the service for ancestors on New Year's Day, the descendant can form his own identity related to his ancestors. Secondly, it can be the chance to form peaceful family and to enhance team spirit in the family. Thirdly, JeongJoChaRae can play a role in the education for the family cooperation, t harmony and socialization. That is, JeongJoChaRae is to practice descendants' propriety for ancestors by thinking of ancestors on New Year's Day and appreciating their grace. This is not simply the imitation of tradition but the chance to confirm the link between one individual and his ancestors and to make scattered family members get together. It can be also the place for education to modern people, who put much value on the individualism and the selfishness. Through the practice, we can cooperate one another and keep the sincerity and the admiration in mind.

慶北地域 宗家の 正朝茶禮 사례연구

1. 각 종가의 가력(家歷): 가정의 역사, 인물, 지역, 특이사항을 중심으로 조사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 시대의 본관, 성별, 연령, 며느리 혹은 형제순위, 종교(본인의 종교), 혼인연수,
3. 茶禮준비
 - 1) 제계- 하루전에 사당소제, 제기씻기.
 - 2) 차례의 시간
 - 3) 차례의 장소
 - 4) 차례의 주관자
 - 5) 차례를 모시는 범위와 참석범위
 - 6) 신위를 모시는 방법(신주, 지방, 사진, 지방+사진 등)
 - 7) 제복
 - 8) 제구, 제기
 - 9) 각 제수의 조리 및 진설방법(구체적으로 기술, 진설도 작성)
(제수에 관한 질문의 예)
 - (1) 현재 사용하고 있는 祭酒(술)는?(빚거나 혹은 사거나 등)
 - (2) 祭酒(술)로 특히 사용하지 않는 것은?

- (3) 떡국을 올릴 때 떡을 써는 모양은?
- (4) 자반을 쓸 경우 자반의 종류와 가짓수는?
- (5) 포를 사용하시는 경우 포의 종류와 가짓수는?
- (6) 귀덕에서 식혜 혹은 어혜(젓갈)를 올리십니까?
- (7) 식혜를 그릇에 담아 놓을 때 위의 장식은 어떻게 하십니까?
- (8) 귀덕에서 사용하고 있는 탕의 종류와 가짓수는?
- (9) 탕을 그릇에 담아놓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 (10)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적의 종류와 가짓수는?
- (11) 귀덕에서 적을 담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한 가지씩 혹은 세 가지를 한번에 등)
- (12) 적에 적사지를 사용하십니까?
- (13) 탕이나 적에 쓰는 육류와 어류는?
- (14) 탕이나 적에 특히 쓰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 (15) 사용하시는 떡의 종류는?
- (16) 편(떡) 위에 장식을 하십니까?
- (17) 편청(꿀)을 함께 놓으십니까?
- (18) 편(떡)의 장식으로 쓰는 떡의 종류는?
- (19)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숙채(나물)의 종류는?
- (20) 숙채를 쓰실 때 몇 가지를 어떻게 담으십니까?
- (21)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침채의 종류는?
- (22) 생채를 올리고 계십니까? 올리신다면 종류와 담는 방법은?
- (23) 전(갈래)을 사용하는 경우 종류와 가짓수는?
- (24) 제사에 쓰는 과류(果類) 중 쓰는 것과 특히 쓰지 않는 것은?
- (25) 제기에 피어놓는 과일의 수는?
- (26) 귀덕에서 사과를 쓰실 때는?(껍질을 깎는 여부)
- (27) 귀덕에서 배를 쓰실 때는?(껍질을 깎는 여부)
- (28) 귀덕에서 제상에 올리는 장류는?
- (29) 제수에서 특별히 쓰지 않는 것은?
- (30) 상위에 좌면지를 사용하십니까?

차례상 전설도



4. 茶禮의 절차

- 1) 제상의 설치
- 2) 진설
- 3) 참사자 서립

4) 신주 개독

5) 강신(분향너주)

6) 참신

7) 헌작

8) 유식

9) 낙시저

10) 사신

11) 납주

12) 철상

13) 음복